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4년 6월호

# 리아호나



**신권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의 답, 18쪽**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 건전한  
오락을 선택하려면, 14쪽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 시온을  
건설합시다, 30쪽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치고 축복하며, 복음 의식을 베풀고, 필요한 다른 신권 보호 조치를 취할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신의, 존경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그런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저는 이런 것들을 압니다”,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7쪽.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창조주

**특집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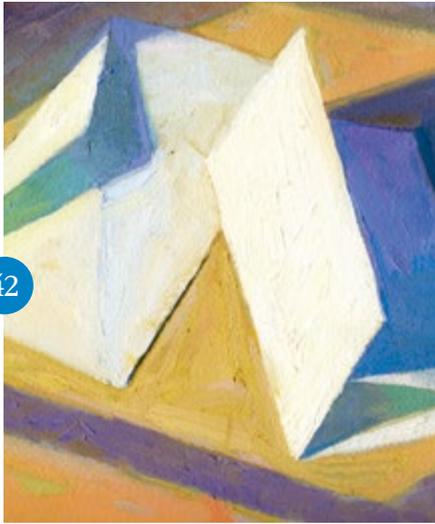
- 14 가치 있는 대중 매체  
캐서린 넬슨  
오락과 관련된 교류에서 목적적이고  
성별된 선택을 할 수 있다.
- 17 자녀 양육, 플러그를 뽑아라  
젠 핀보로우  
구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듯이 보고자 한다면,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고,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을 끊어야 할 것이다.
- 18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권  
권능  
린다 케이 버튼  
신권은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주어진 신성한 신뢰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 24 각국의 개척자들  
이탈리아의 후기 성도들: 신앙의  
유산  
리아 맥클라너헌  
이탈리아에 세워진 성전은 충실한  
성도들이 이룩한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 30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부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비록 우리가 바벨론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지금 시운을  
건설해야 합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세자르 리마 에스칼란테  
우리 가정, 우리 가족
- 10 어려움은 축복이다  
레이철 해리스
- 12 구약의 선지자들  
사무엘
- 1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십일조와 헌물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켈리 루이스 우리리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사경을  
헤매게 되었지만, 한 단어 덕분에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표지  
앞: 사진 삽화 제리 간스  
표지 안쪽: 사진 삽화 브레들리 슬레이드



**42** 행복의 길을 따라  
제럴드 코세 감독  
행복을 짓는 건축가가 되는 데 이 세 가지 원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47** 온라인으로 나누는 복음  
마리아 마흔리-이그라질 아르두오 안다카  
내 믿음을 나누는 일이 늘 쉽지 않았었는데, 나는 첨단 기술 덕분에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그물 안에 있는 게 뭐죠?



**48** 선택의지와 응답: 계시를 인식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성장하기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하는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52** 만약 가슴속에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레이철 닐슨  
나는 가슴속에서 뜨거움을 느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성신의 속삭임을 들어 본 적이 없는 걸까?

**56** 작은 속삭임에 따른다  
작은 속삭임이 얼마나 큰 효과를 일으키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57** 동생을 위한 축복  
제시 존스  
모터사이클 사고로 동생이 병원에 실려 갔다. 걱정이 된 나머지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58** 질의응답  
"성찬식 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60**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십일조는 내적인 힘을 가져옵니다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  
십일조를 바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62**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  
더그 보이엑  
여행과 십일조를 통해 배우기 전까지 교회 따위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63** 포스터: 파괴할 수 없습니다



**64** 엄마를 위한 축복  
수잔 배렛  
엄마는 등이 아파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루벤은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66** 특별한 증인: 선교사처럼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닐 엘 앤더슨 장로

**67** 경건의 양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단지 스티커가 갖고 싶어서 경건하려 했지만, 더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68** 전 세계 친구들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로레다나예요  
애미 제인 레빗

**70** 인형 놀이: 이탈리아의 마시모

**71**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도와줍시다

**72** 우간다의 소년 지휘자  
데이비드 덕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휘를 하는 것은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조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74**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  
신권 의식과 성전 사업은 우리 가족을 축복한다  
제니퍼 메디

**76** 우리들 이야기

**7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선지자 초상화: 고든 비 힝클리

2014년 6월호 제51권, 제6호  
리아호나 10986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미터 예프 우호트도르프  
**심사도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욘스, 엠 라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열 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윌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케이 카든

**고문:** 호세 엘 알론소, 머빈 비 아놀드, 세인 엠 바운, 스텐리 지 웨일스, 크리스토퍼 콜든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편집장:** 알 발 존슨

**부편집장:**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민디 라에 프리드만,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키티,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스 오데커커, 조슈아 제이 퍼기,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톨니, 폴 벤덴버그, 머리사 왓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넷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앤디 엠 벤틀리, 시 캄볼 보토, 토머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버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켄호스트

**직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뱅크스, 콘니 바솔프 보르치, 줄리 바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디니스 커비, 지니 케이 낄슨, 가일 타데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1호, 제51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g.kr](http://www.liahona.org.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o@hanmail.net](mailto:koreado@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잡지 구독 신청서'는 [www.lds.org](http://www.lds.org) '교회와 연결하기' 배부 센터)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광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mailto: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문명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4 Vol. 38 No. 6.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권 권능” 18쪽:** 가정의 밤 시작 전에 이 기사에서 버튼 자매가 제시한 네 가지 질문을 읽는다. 가정의 밤에 작은 전기 스탠드를 가져온다.(플러그가 빠져 있어야 한다.) 몇 식구에게 등을 켜 보라고 한다. 등을 켜기 위해 필요한 힘을 신권 권능에 비유한다. 플러그를 꽂고 등을 켜 다음, 우리 모두가 등의 빛, 또는 신권 권능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토론한다. 식구들에게 신권으로 축복받았던 방식을 생각해 보게 한다. 버튼 자매가 암기하라고 당부한 교리와 성약 84편에 나오는 성구를 암기하며 시작할 수도 있다.

**“월의 멋진 생각” 78쪽:**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쪽), 또는 성전에 관한 다른 노래를 부르며 시작해도 좋다. 가족이 함께 이 기사를 읽고 성전이 왜 중요한지를 토론한다. 가족 모두에게 성전 그림을 그리게 한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전을 그려도 좋다. 79쪽에 나오는 사진과 그림을 집안에서 날마다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늘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데 성전 사진을 보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한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http://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각 숫자는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                        |                       |                 |
|------------------------|-----------------------|-----------------|
| 가족 역사, 4, 6, 38        | 기도, 48                | 순종, 18, 56      |
| 가족, 10, 17             | 미디어, 14, 17, 47       | 시온, 30          |
| 개인적인 가치, 42            | 봉사, 71, 72            | 신권, 18, 64, 74  |
| 개종, 24, 62             | 부름, 72                | 신앙, 80          |
| 개척자, 24                | 선교 사업, 24, 30, 47, 66 | 십일조, 13, 60, 62 |
| 결혼, 10                 | 선지자, 12, 41, 81       | 예수 그리스도, 7, 8   |
| 경건, 67                 | 선택의지, 14, 48          | 우울, 39          |
| 계명, 30                 | 성신, 48, 52, 56, 67    | 음악, 72          |
| 계시, 18, 41, 48, 52, 56 | 성전, 10, 24, 74, 78    | 지혜의 말씀, 40      |
| 고든 비 핑클러, 81           | 성찬, 8, 58             | 행복, 42          |
| 계약전서, 12               | 소망, 80                | 헌납, 14          |
| 금식 헌금, 13, 60          | 속죄, 8, 58             |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회** 복된 교회가 100개의 스테이크를 두기까지 9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후 30년도 채 안 되어서 교회는 100개의 스테이크를 더 조직했으며 그로부터 불과 8년 만에 교회의 스테이크 수는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3,000개 이상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더 잘 알려진 탓일까요? 멋진 예배당이 있어서일까요?

그런 점들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나,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sup>1</sup>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이 위대한 사업을 앞당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이 시기에 지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주님은 그분의 일이 이생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일은 영원에 이릅니다. 저는 주님이 영의 세계에서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그곳에 있는 종들을 통해 많은 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아낸 후에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여 휘장 저편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기회를 드리는 일입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훌륭한 후기 성도들은 바쁘게

지낸다고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이곳과 또 다른 곳에 성전 건립의 사업을 서두르도록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sup>2</sup>

그런데 가족 역사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스칸디나비아에 계신 분들이 겪고 계시는 좌절감을 심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제 스웨덴 쪽 조상을 보면 조부님 이름은 넬스 몬슨이고, 증조부님 이름은 몬슨이 아닌, 몬스 오케슨이었으며, 고조부님 이름은 오케 피터슨이었고, 5대조 할아버지 이름은 다시 몬슨으로 돌아가 피터 몬슨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족 역사 사업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족 역사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의롭게 생활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구하는 축복이 실현되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실수도 하겠지만, 우리 중 아무도 먼저 초보자의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가족 역사 사업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며, 어느 정도 가파른 고갯길을 오를 각오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과업은 아니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다 보면 장애에 부딪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될 때도



생겨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를 때에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듯이 영의 세계에 있는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죽은 자를 구원하는 사업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빨리 성취되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말한 일들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되면서 옛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무와 특권을 보여 주셨[습니다.]”<sup>3</sup>

복음 지식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조상에 관해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속박의 사슬이 그들에게서 풀릴 것이며,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이 깨끗이 사라져 빛이 그들 위에 비추게 되어,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곳에서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 행해진 사업에 대해 듣게 될 것이며, 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sup>4</sup>

죽어서 영의 세계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들어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복음을 배웠으며,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분들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집행할 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나 제가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해 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책임을 받아들이고 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

주

1. 교리와 성약 88:73.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280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9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247쪽.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의 가족사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방문한 사람들과 나누다. 제일회장단 메시지의 어린이란에 나오는 질문(6쪽)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분들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부탁해도 좋다. 교리와 성약 128편 15절을 읽고, 조상을 대신하여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토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 색인 작업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에마 아브릴 툴레도 시스네로스

**나**는 50,000명의 이름을 색인 작업하는 스테이크 목표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꽤 힘들었다. 내가 다운로드한 묶음에는 읽기 어려운 필체가 여러 차례 있어서 그 묶음을 반환하고 다른 것을 다운로드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묶음은 마지막까지 남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영의 세계에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을 많은 분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계속해서 그 이름들을 판독하고자 힘썼고, 또 그것들을 실수 없이 옮기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분들에게는 참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 역시도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분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의 영감과 지시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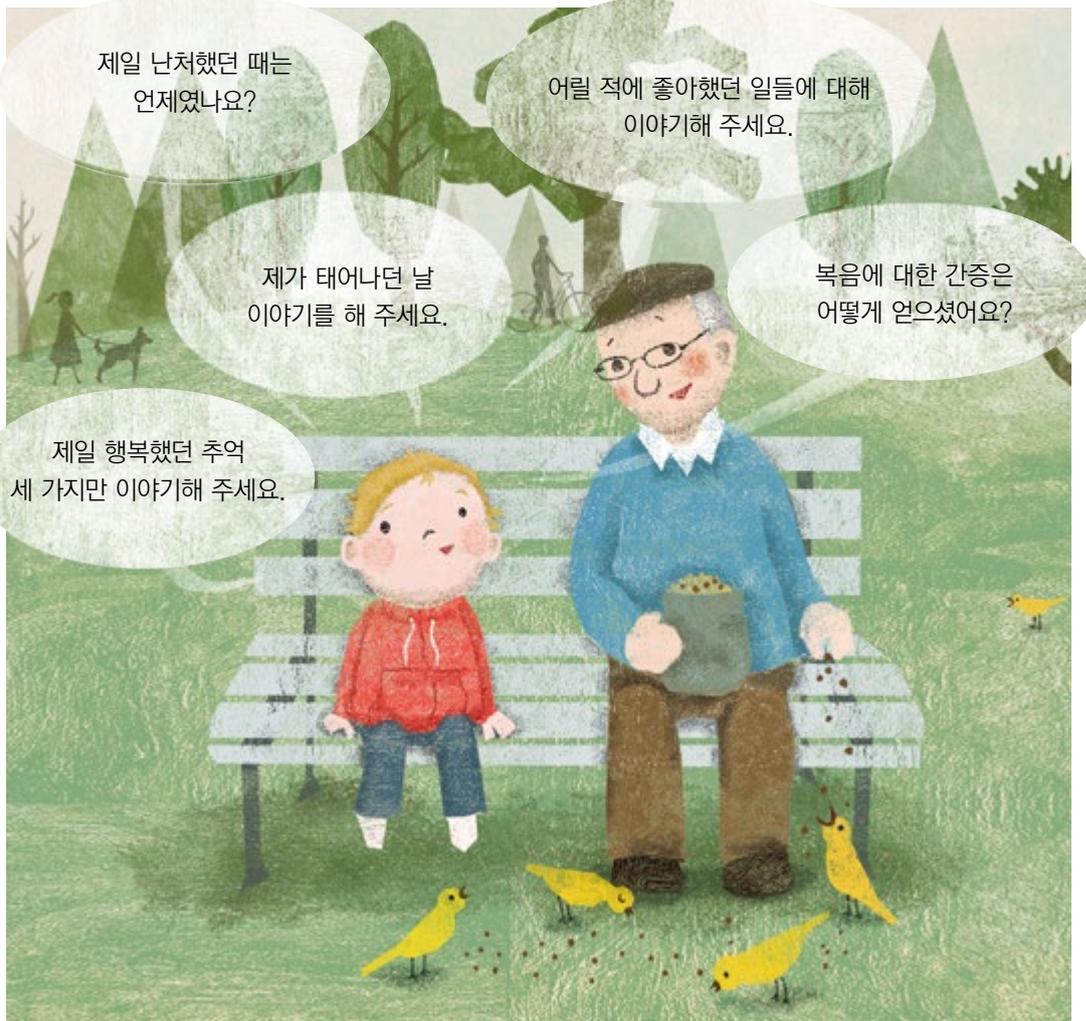
색인 작업은 나에게 기본 좋은 경험이었다. 나는 가족 역사에 관한 많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색인 작업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크나큰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글쓴이는 멕시코 베라크루스에 산다

### 어린이

#### 가족 이야기를 알아보세요

**부** 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험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들으면 웃음이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때로는 쑥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떠올리도록 도와드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받아 적거나 그려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며 무엇을 나눌지 구한다. 구주의 삶과 사명을 이해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또한 우리가 방문 교육을 통해 보살피는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ids.org](http://reliefsociety.lids.org)에서 알아본다.



## 신앙, 가족, 구제

###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185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이 아직도 평원을 건너는 중이며, 그들을 위해 모든 사람이 즉시 물품을 모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루시 미저브 스미스는 “태버내쿨에 있던 여성들은 페티코트[큰 속치마]와 스타킹을 그 자리에서 벗었으며, 기타 모든 여분의 물건을 짐마차에 실었[다.]”라고 기록했다.

구조된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루시는 이렇게 기록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힘들여 일한 후에 그렇게 큰 만족감과 기쁨을 느껴 본 적은 없었으며, 그렇게 모두 하나가 된 듯한 기분도 느껴 본 적이 없다. 상점에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만 하면 되었다. 천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게 주인은] 돈도 받지 않고 곧바로 잘라 주었다.”<sup>4</sup>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은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에 대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비례합니다.”<sup>5</sup>라고 말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창조주

구주께서 행하신 사명의 여러 측면을 특집으로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

**다** 른 사람들을 보살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이 된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궁핍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돋워 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sup>1</sup>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할 때 좀 더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라.’ ……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약을 지키게 되며, 몬슨 회장님이 그리하시듯이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할 것입니다.”<sup>2</sup>

매일 아침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데이비드 엘 벡 본부 청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영혼을 구할 힘을 받을 것입니다.”<sup>3</sup>

### 성구에서

마태복음 20:25~28;

니파이전서 11:27~28; 제3니파이 28:18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6쪽.
2. 린다 케이 버튼,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78, 80쪽.
3. 데이비드 엘 벡, “성역을 베푸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6쪽.
4. 루시 미저브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36~37쪽.
5. 조지 앨버트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77쪽.

###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본다.

1.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고자 할 때 기도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

2.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은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세자르 리마 에스칼란테

**어**느 일요일 성찬식 전에 감독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다. “성찬 축복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물론 그러겠다고 말했다.

나는 내 찬송가를 챙겨 든 다음, 성찬대 자리에 앉기 전에 손을 씻었다. 찬송가를 펴니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이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모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에, 첫 번째 줄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를 읽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깊은 사랑의 느낌이 내 마음을 채웠다.

전날 밤 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즉 최후의 만찬, 겐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분의 죽음 및 부활이 포함된 부분을 읽었다. 사형 집행자들에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며, 조롱받는 예수님 모습을 떠올려 보았으며, 제자들이 잠든 동안 겐세마네 동산에서 속죄 희생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마음속에 그려 보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물을 축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새삼스레 깨달았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침례 받을 때 맺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맺을 수 있다.

성찬식이 시작되자, 이런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방식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 곧 나에게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주님께 그토록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구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나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나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도 느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다(요한복음 15:13 참조). 성찬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다른 형제와 함께 의식을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빵을 덮고 있던 깨끗하고 흰



## 영적으로 정화되는 경험

“매주 성찬이 영적 정화의 경험이 되게 하려면, 성찬식에 참석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매일 하던 일과 오락거리 등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근심에서 벗어나므로써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과 가슴에 성신이 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

성찬 찬송을 부르고, 성찬 기도에 참여하며, 그분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취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와 결점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전 주 동안 맺고 지켰던 약속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 한 주 동안 구주를 따르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성찬, 성전, 희생 봉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4쪽.



성찬보를 건넸다. 빵을 손에 들고서, 나는 의식의 일부로 그것을 떼어 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간 멈췄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 않는가! 주님을 다치게 하는 병정들에게 생각이 미치지 빵을 떼어 내고 싶지 않았다. 첫 번째 조각을 떼어 내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고통을 주며, 괴롭고도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분을 다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했다. 빵을 준비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다가 이런 괴롭고도 수치스러운 사건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일부이며, 그분께서는 나와 우리 각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희생을 치르셨던 것이다.

나는 큰 기쁨과 화평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축복되고 성결하게 되고 있으며, 매우 고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빵을 조심스레 한 조각 한 조각 떼어 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속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빵을 다 떼어 내자 성찬기는 떼어 낸 빵으로 가득 찼는데, 그 광경은 놀랍고도 고귀하게 느껴졌다. 나와 짝을 이룬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교리와 성약 20:77)라는 문구가 그토록 분명하게 이해된 적이 전에는 없었다.

빵을 취하니 구주의 사랑이 다시금 느껴졌다. 또 내가 보호받고 있는 느낌과, 겸손해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내 생활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모든 일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의 속죄 축복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한다. ■

글쓴이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산다.

## 생각해 볼 질문

나는 성찬을 들기에 합당하도록 더 잘 준비하기 위해 한 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성찬식 도중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성찬을 들며 용서를 느끼고 영감을 받는가?

# 어려움은 축복이다

레이철 해리스

성전 결혼에 따르는 어려움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

**나**는 한 선한 친구와 함께 성전 결혼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농담 삼아, 축복은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지만, 어려움은 많이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말했다. “글쎄, 아마 그런 것들도 축복일걸!”

나는 친구의 말이 옳았다는 걸 알았다.

성전에서 인봉됨으로써 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아직 젊은 신혼부부였음에도 남편과 나는 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을 살필 때 성전 성약이란 “안정”을 통해 보았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들과 가장 기쁜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생활에서 느낀 기쁜 순간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 올리거나 (“Submit Your Work”을 클릭함)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 영원한 관점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며, 그러한 결혼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로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출산을 미루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느꼈다. 남편이 대학 학부 과정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가족은 계속 늘어났다. 정규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다섯 아이가 있었다. 나는 시간제로 공부를 계속했기에 집에서 자녀를 보살필 수 있었다. 지금은 그 결혼 초창기 시절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돌아보게 된다. 실로 엄청난 시절이었다! 우리는 생후 15개월이 안 된 두 아이와 함께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고, 변변찮은 학생 수당을 받아 생활하며 썩 햄버거를 자주 먹었다.

나는 그 결혼 초창기 시절을 우리 부부의 개척자 시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정생활을 시작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하며 대학 공부라는 “평원”을 가로질렀다. 그 내용과 정도를 비교하면 내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느 면에서는 마틴 손수레 부대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이 그 여정에 대해 말했던 내용과 흡사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sup>1</sup>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결혼 초기에 택한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며, 자녀를 갖기 위해 졸업을 미루고, 한 사람이 번 돈으로 생활하며, 얼마간의 안락함마저 희생하는 일이 어리석게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8~9)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세상에서 추구하려던 목표를 희생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통해 겸손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 함께 어려움에 맞서며

교리와 성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는] …… [주께] 받아들여지느니라.

이는 나 주가 그들로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97:8~9) 우리의 다섯 자녀는 귀한 열매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가장 큰 축복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돌이켜 볼 때 솔직히 그 어려움들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그분과 우리 동반자에게 향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시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신다.

성전 결혼은 지고한 승영의 성약이다. 이 성약을 지키면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 곧 영원한 증식을 뜻하는 영생으로 인도된다.(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성전 결혼을 하면 이런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므로, 우리는 성전 결혼을 계기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칠십인 명에 회원인 브루스 시 하펜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우리는 안락함을 위해 결혼하려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면 늘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으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결혼은 단지 안락함만이 아닌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sup>2</sup>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할 때 마음이 늘 편한 것은 아니었으나 실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 기쁨을 맛보았다.

### 힘든 일과 기쁨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평생 해 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 자녀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두 순간의 힘든 일만 있을 뿐 대개는 즐거울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임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영원한 반려자 관계를 맺었기에, 부모가 되는 일과 결혼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한 일종의 실습 기간인 셈이다. 이생에서 부모가 되는 책임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 및 목적과 유사하다.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데에는 굉장한 인내와 힘과 사랑이 요구된다. 하지만, 어머니가 됨으로써 나는 성품과 소망, 가능성 면에서 좀 더 하나님처럼 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

성전에서 인봉됨으로써 나는 예기치 않았던 여러 축복을 받았으며 성전 인봉은 나에게서 힘의 원천,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성전 성약은 조상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함에 따라 내가 그분들과 단단하게 결합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힘이 되고 있다. 내가 한 성전 결혼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으며 크나큰 축복들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나는 안다. ■

글쓰시는 뉴질랜드에 산다.

### 주

1. Francis Webster, William R. Palmer, “Pioneers of Southern Utah”, *The Instructor*, May 1944, 217-18.
2. Bruce C. Hafen, *Covenant Hearts: Marriage and the Joy of Human Love*(2005), 13.

# 사무엘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왔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sup>1</sup>

**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 하는 여인이었는데,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는 나를 낳았다. 나는 아직 어렸지만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으로 데려가셨다. 성전에서 나는 제사장 엘리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았다.<sup>2</sup>

어린 시절, 어느 날 밤 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세 차례나 엘리를 찾아갔으나 엘리가 나를 부른 것은 아니었다. 엘리는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로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엘리의 권고를 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sup>3</sup>라고 대답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내가 더 성장하자 그분은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노년에 나는 내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판사)로 임명했으나 내 아들들은 의롭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왕을 세울 때 따르는 위험을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님은 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야”<sup>4</sup> 한다고 명하셨다.

주님은 나를 “순수한 소년”<sup>5</sup>인 사울에게로 보내셨으며, 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sup>6</sup>로 삼았다. 그는 왕이 되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 사울은 아말렉의 가축을 남겨두어 그것을 제물로 바쳤다. 나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sup>7</sup>라고 가르쳤다.

사울이 불순종했기에 주님은 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하셨다. 이새는 나에게 일곱 명의 아들들을 보여 주었으나 주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sup>8</sup> 주님은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계시해 주셨다. 용모나 키를 보면 다윗의 형들이 좀 더 장차 왕이 될 재목으로 보였지만,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이끌도록 그 어린 양치기 소년을 택하셨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주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신대]”<sup>9</sup>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을 행사함”,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47쪽.
2. 사무엘상 1~2장 참조.
3. 사무엘상 3:10.
4. 사무엘상 8:22.
5. 사무엘상 9:2.
6. 사무엘상 9:16.
7. 사무엘상 15:22.
8. 사무엘상 16:10 참조.
9. 사무엘상 16:7.



## 십일조와 헌물

**십** 일조와 헌물을 낼 때,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번 호 60~61쪽에 게재된 기사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는 청소년 시절, 자신이 번 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십일조를 냈던 것이 어떻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퍼킨스 장로는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신앙이 더 강해졌고 주님의 다른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망도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가르치는 다음 원리를 실천했다. “십일조를 내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십시오.”([2011], 38쪽)

###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제안

-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모범을 통해 배운다. 십일조를 냄으로써 축복을 받은 다섯 사람의 이야기를 “십일조에서 얻는 축복”(리아호나, 2013년 3월호, 26쪽)에서 찾아 읽어 본다. 십일조를 냄으로써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토론한다. 십일조와 헌물을 냄으로써 교회의 모든 회원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8~39쪽)에서 십일조와 헌물 부분을 함께 읽어 보는 것을 고려해 본다. 금식과 금식 헌금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며 여러분의 가족은 금식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제안

- 다음을 실제로 보여 주며 설명하도록 한다. 동전 10개를 탁자에 놓는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열 개 동전 중 아홉 개를 주고, 한 개는 주님의 왕국 건설을 돕는 데 쓰겠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가족에게 물어 본다. 가족 모두가 그런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일까? 그런 다음에 이 상황과 십일조의 법 사이에 있는 유사점을 설명할 수 있다.
- *리아호나*, 2011년도 8월호(70~72쪽)에 나오는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사에는 동전 한 닢에 불과하더라도 십일조를 내는 것은



### 이 주제에 관련된 성구

- 레위기 27:30, 32
- 신명기 26:12
- 느헤미야 10:38
- 말라기 3:8, 10; 또한 제3니파이 24:8, 10 참조
- 누가복음 18:12
- 엘마서 13:15
- 교리와 성약 64:23; 97:10~12; 119:3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을 실제 경험으로 배운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은 또한 자녀들과 함께 모든 관련 활동들을 해 볼 수 있다. ■

리아호나 이전 호는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 캐서린 벨슨

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먹는 고기를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는(곡물로 만든)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시기로 뜻을 정했다. 열흘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 [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다니엘 1:15, 17)

이 일화는 지혜의 말씀과, 말 그대로, 우리가 취하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자주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비유적으로 해석되어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다른 원리들 역시 전해 준다. 그러한 것에는 오락을 위한 대중 매체, 즉 예술과 책, 춤, 음악에서 디지털 대중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이르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필요한 영양분도 부족하고, 마음을 흐트러 왕궁에서 받는 훈련을 방해하는, 호화롭지만 위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피하겠다는 신중한 결정을 내렸듯이, 우리도 건전한 오락을 분별있게 선택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25:10 참조)

다음은 시험의 상태인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귀중한 시간에 걸맞은 오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들이다.



### 경박한 생각을 피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오락을 찾는다. 이 시간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긴장을 풀고 웃음을 나누고 좋은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sup>1</sup> 이런 활동을 통해 느끼는 상쾌한 기분은 성신의 영향으로 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갈라디아서 5:22~23) 오락 활동을 한 뒤에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지려면 우리가 선택하는 오락이 성신의 속삭임과 치유하는 힘을 받기에 전혀 거리낄 게 없는 것이어야 한다.

성신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이라면 참여하거나 보거나 가담하지”<sup>2</sup> 말라는 권고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부도덕한 내용이 없는 듯한 대중 매체도 정신을 흐트러뜨려 인생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건전한 오락을 통해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경박해지도록 이끄는 오락도 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하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경박한 말과 모든 웃음과 너희의 모든 탐욕적인 욕망과 너희의 모든 교만과 경박한 생각과 너희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치라”(88:121) 어떤 오락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허황된 생각과 사소한 일들이라고 묘사한 것으로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정신이 흐트러져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지닌 목적에서 멀어지게 된다.<sup>3</sup> 그런 경박한 오락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금세 “성스러운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신성한 것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의도적인 불경”<sup>4</sup>에 이르게 된다.

# 가치 있는 대중 매체

###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우리가 듣고, 보고, 읽는 오락이 제멋대로 우리 마음과 정신에 들어오도록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행하는 방법을 배워 “[우리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는]]”(니파이후서 2:26) 존재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부분이다. 참된 주체자가 되는 일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오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오락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대중 매체를 소비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이는지, 그리고 그 대중 매체가 공공연하게, 또는 은연중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알아야 한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그룹 책임자를 맡고 있는 라이언 홈즈는 우리가 “기술을 신중히 사용”해야 하고 “사용에 따른 모든 결과”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sup>5</sup>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극장 및 미디어 예술과

과장으로 일하는 에이미 피터슨 젠슨은 “능동적으로 대중 매체 소통에 참여하고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를 피하는 것이”<sup>6</sup>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간을 현명하게 쓴다

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일면에는 우리가 오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를 아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선택할 것이 너무 많기에 “여러분에게 오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데이터 피드, 스트리밍, 알림 등을”<sup>7</sup> 받느라 여러분은 정신을 못 차리기 쉽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더 강하고 지혜롭고 자애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리의] 시험의 날들을”(니파이후서 9:27) 흘려버리고 말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최신 비디오나 화끈하고 새로운 쇼, 또는 최신 업데이트를 하느라 저녁 시간을 다 허비하는 대신, 우리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활력을 되찾게 해 주는 의미 있는 오락을 즐길 수 있다. 홈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sup>8</sup>



### 마음을 고양시키는 대중 매체를 선택한다

오락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데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대중 매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유념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오락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메시지를 전한다. 예를 들어, 영화나 책을 보며, 그 상징이나 등장 인물, 가사, 이미지 등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어떤 가치가 있지? 어떤 행동을 권하고 있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숭앙하는 데 그것들이 도움이 될까? 그분의 신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희생에 대해 뭔가 배울 것이 있나? 사랑에 대해서는? 이타심에 대해서는?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지? 오락에 담긴 메시지에서 복음과 관련된 어떠한 진리도 얻지 못할 경우, 그 오락은 시간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단지 오락일 뿐이야. 학교나 교회가 아니잖아. 오락에서 굳이 뭔가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이 읽거나 듣거나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sup>9</sup>

정신과 마음을 쏟아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를 평가할 때, 우리는 반추하는 순간들을 맞게 된다. 젠슨 교수는 이런 시간을 “대화”라고 칭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듣고 그에 응답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교환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훌륭한 대화는 종종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인데, 그러한 대화를 통해 흔히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찾거나 더 잘 행동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런 순간에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는 대체로 작고, 간단하고, 점진적이고, 위안적이고, 생산적이다.”<sup>10</sup>

우리는 여가 시간에도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신앙개조 1:13)을 추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읽거나 [시칭하는] 모든 것이 ……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거나 좋은 것을 쌓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가 즐기는 오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전을 얻고 나누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 목적이 있고, 성별된 행동”<sup>11</sup>이어야 한다

그런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오락, 즉 가치 있는 대중 매체는 우리가 교화되고, 삶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데에, 그리고 우리의 제자 정신을 강화하는 데 힘이 된다고 믿는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이 선언문은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원리의 하나로 “건전한 오락 활동”을 꼽는다.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11쪽.
3. 델린 에이치 옥스, “훌륭한 개념”,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27쪽 참조.
4. Brad Wilcox, “If We Can Laugh at It, We Can Live with It”, Ensign, Mar. 2000, 29.
5. Ryan Holmes, “The Truth of All Things”(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May 7, 2013), speeches.byu.edu.
6. Amy Petersen Jensen, “Some Hopeful Words on Media and Agency”(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Mar. 20, 2012), speeches.byu.edu.
7. Holmes, “The Truth of All Things,” speeches.byu.edu.
8. Holmes, “The Truth of All Things,” speeches.byu.edu.
9.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1쪽.
10. Jensen, “Media and Agency,” speeches.byu.edu.
11. Jensen, “Media and Agency,” speeches.byu.edu.

# 자녀 양육, 플러그를 뽑아라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구** 주께서는 간단히 네 마디로 말씀하셨다.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니파이 백성은 자녀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경전에 기록된 사건 중 가장 성스러운 일이 일어났다.(제3니파이 17:23~24 참조)

첫 딸애가 갓난 아기였을 때 나는 그렇게 ‘본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딸아이의 작지만 집요한 울음 소리로 한밤중에 깨어난 나는 아이를 먹일 준비를 했다. 아기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내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아기와 처음으로 서로를 정말로 “바라볼 때” 나는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하리라는, 영원한 유대감을 느꼈다.

신경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신경 생물학자인 앨런 엔 쇼어 박사는 “서로 바라보기” 같은 비언어적 소통을 유아의 뇌가 제대로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꼽는다.<sup>1</sup> 나중에도 이런 연결은 성장하는 우리 자녀의 정신과 마음에, 또 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심코 성의 없이 스치는 눈길로 잠시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상대를 주목하는 행동이다. 즉 다음과 같은 생각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는 내게 참 중요한 존재란다.”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려면, 요즘 부모들은 플러그를 뽑는 절제력, 다시 말해 각종 화면을 멀리하고 디지털 기기를 끄는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내용을 훑어보고 싶은 유혹을 이겨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 및 가족의 미디어 사용 규칙을 신중하게 세워 매일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 내 주는 성스러운 시간을 지키고자 한계선을 그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더 충분히, 더 자주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풍성해지며, 자녀의 마음을 바라보는 성스러운 순간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

주

1. “Relational trauma and the developing right brain: The neurobiology of broken attachment bonds,” Tessa Baradon, ed., *Relational Trauma in Infancy* (2010), 19-47 참조.



## 모든 것을 꺼 두고 사랑으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어쩌면 그 응답은 더 자주 전자 기기를 꺼 놓으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의가 산만하면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매일 전자 기기를 끄고 서로 다시 교류하는 시간을 보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든 기기를 끄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온전히 관심을 쏟을 때 대화가 시작되며, 서로의 말을 더 잘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로즈메리 엠 워슨, 본부 초등회 회장, “우리가 하는 말”,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2쪽.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킨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 신권 권능

신권의 권능은 성임으로 부여되는 것이지만, 신권의 권능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권 권능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교** 회 역사에서 신권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바로 이 시기에 사는 것은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과 관련된 권세와 권능, 그리고 축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려는 지대한 관심과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신권의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

영혼을 적시[게]”(교리와 성약 121:45; 강조체 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시킬 때 오는 권능을 받기 위해 우리는 주께서 그분의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늘 자신의 신권 권능을

통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그분의 사업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신권 권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신권 의식을 통해 타락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의 권세가 사람에게 위임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권 권능을 가정으로 끌어들이 우리의 가족과 개인의 삶을 축복하고 강화하기를 바라십니다.

2013년에 전 세계 지도자 훈련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남자가 곧 신권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그 말씀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 모두 신권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어린이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 신권이란 무엇입니까?
- 신권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 신권 열쇠란 어떤 것입니까?
- 누가 신권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 신권이란 무엇입니까?

신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자 권세로,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구속하고, 승영에 이르게 하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신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권은 주께서 인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 신권 소유자는 이 성스러운 권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뜻과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 신권에는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신권은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며,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sup>2</sup>

신권에 대해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신권에는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신권은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며,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권이 없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 개념을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신권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어둡고 삭막할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만일 신권의 권능이 지상에 없다면, 사탄은 마음껏 돌아다니며 아무런 제제도 없이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몽해 주는 성신의 은사도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선지자도 없으며, 신성하고 영원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성전들도 없으며, 축복이나 침례를 통해 치료하거나 위안을 줄 권세도 없을

것입니다. …… 빛도, 소망도 없이 오로지 어둠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sup>3</sup>

신권 권능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저는 이 성스러운 권능이 마지막이자 영화로운,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옥스 장로님은 신권과 관련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신권을 가진 형제들을 ‘신권 소유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신권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거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및 어린아이 등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sup>4</sup>

### 신권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에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sup>5</sup>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신권의 권세는 가족들을 영원히 인봉하기 위해서 회복되었습니다.”<sup>6</sup>

“복음 의식을 집행하려면 신권 권세가 필요[합니다.] …… 각 의식은 영적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줍니다.]”<sup>7</sup>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는 지시와 함께 왕국의 성스러운 열쇠를 주셨습니다.

### 신권 열쇠란 어떤 것입니까?

뉴 이라(New Era) 2012년 5월호에는 신권 열쇠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있다면, 그것이 없을 때에는 하지 못했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건물에 들어가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여행용 가방을 여는 등 여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쇠는 권세와 접근을 의미합니다.

신권 열쇠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신권 열쇠는 신권의 축복과 의식에 대한 접근을 관리합니다. …… 신권 열쇠는 교회를 감리하고 인도하는 권리입니다. …… 열쇠는 대체로 워드 또는 스테이크, 선교부와 같이 지리적 지역에 적용됩니다. 신권 열쇠는 또한 특정한 의식과 활동(예를 들어 침례, 성찬, 선교 사업, 성전 사업)에 대한 권세를

포함합니다.”<sup>8</sup>

### 누가 신권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상의 하나님 왕국과 관련된 모든 열쇠를 그분의 사도들에게 각각 부여해 오셨[습니다]. 살아 있는 선임 사도인 교회 회장이 지상에서 모든 신권 열쇠를 행사하도록 권세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교리와 성약 107:91~92 참조) …… [그는] 다른 신권 지도자들에게 신권 열쇠를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들은 책임을 맡은 지역에서 감리[합니다.] …… 보조 조직 회장과 그들의 보좌는 열쇠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위임받아 부름을 수행[합니다.]”<sup>9</sup>

하지만 신권 권세와 신권 권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권의 권세는 성임으로 부여되는 것이지만, 신권의 권능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권의 권능을 우리의 가족과 가정 안에 임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 속에 그런 권능을 불러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권 권능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의로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권의 교리를 이해한다

첫째, 성신의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권의 교리는 계시를 통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그 교리를 밝히고 우리 영혼을 적시려면 반드시 성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성전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예배의 모든 장소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sup>10</sup>이며, 계시의 영으로 신권에 대해 배우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압니다.

셋째,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경전을



탐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면, 신권에 대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 주는 성신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와 성약 13, 20, 84, 107, 121편과 엘마서 13장입니다. 그런 다음 교리와 성약 84편 33~44절에 있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외우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성신이 놀라운 방법으로 신권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 주고 영감을 주고 들어 올려 줄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 121편 34~46절을 깊이 생각해 보고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일에 얽매어 있

는가?

- 나는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는가?
- 나의 죄를 은폐하려 하는가?
- 나는 교만한가?
- 자녀, 남편 또는 다른 이들을 통제하거



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는가?

- 나는 설득과 온유함, 오래 참음, 친절, 온화함(진실하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을 뜻하는), 거짓 없는 사랑과 같은 의로운 원리를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가?
- 쉬지 않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는가?
- 성신이 나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기를 고대하는가?

여러 해 전에 제 아버지께 축복을 부탁했던 일을 떠올리자 설득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친절함, 온화함과 거짓 없는 사랑 같은 말들이 새롭고도 매우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청년 독신 성인 시절, 저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저는 아버지께 가서 가장의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제 부탁을 즉시 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려면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이를 정도 기다려 주면 어떨겠니?”

흥미롭게도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버지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는 다 잊었지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가장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실 정도로 거룩한 신권을 소중히 여기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계셨으며, 가족을 축복하는 신권 권능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되고자 그러한 원리에 따라 살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

영감을 주시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과 함께 거의 매일 같이 일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신권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줄,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신권 권능을 지니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얼마 전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이 부여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신권을 배풀 고유한 책임이 남성에게 있긴 하지만, 남성이 곧 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 하는 역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성이 남성 없이 임신할 수 없듯이 남성도 여성 없이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신권 권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영원한 관점에서 출산 능력과 신권 권능은 모두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sup>11</sup>

저는 여성의 도덕적 영향력이 신권 권능을 보완하는 은사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펼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하도록 간청합니다.”<sup>12</sup> 얼마 전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은 적든, 또는 그 사이이든 여러분의 도덕적인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sup>13</sup>

벨라드 장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로운 여성만큼 아이를 키우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sup>14</sup>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질문들도 분명 있습니다.

## 먼저 순종하고, 그런 후에 이해하라

답이 없는 질문을 다룰 때 세계 도움이 되었던 한 가지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는 경험이 풍부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신 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감리 역원 한 분이 최근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모임이 끝날 무렵 그분은 아주 어렵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질문임을 인식한 저희 부부는 곧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고자 연단으로 나와 위엄 있게 서서 어깨를 펴고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분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형제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신권의 권능을 지상에 회복한 도구였음을 압니다. 물문경은 참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주님을 대신해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선지자가 오늘날 계심을 압니다.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압니다. 나머지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부인인

하나님의 신권은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성스러운 신뢰입니다.



마조리 힝클리 자매님이 하신 말씀인 ‘먼저 순종하고, 그런 후에 이해하라’는 단순한 신앙의 말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은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성스러운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권 권능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 영혼에 깊이 스며들며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 이 교회와 신권 권능 및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3년 5월 2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여성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다음 웹 페이지에는 신권에 대한 핵심 개념이 설명되어 있어 가정의 밤, 일요일 공과, 선교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lds.org/go/b614000](https://lds.org/go/b614000)

## 주

1. 맬린 에이치 옥스, “가족 안에서의 신권 권능”(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wwlt.lds.org](http://wwlt.lds.org).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하늘의 권능”,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48쪽; 강조체 추가.
3. 로버트 디 헤일즈, “신권의 축복”,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32쪽.
4. 맬린 에이치 옥스, “상호부조회와 교회”,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36쪽; 강조체 추가.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6. 러셀 엠 벨슨, “결혼 생활을 보살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7쪽.
7.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1.2.
8. “Priesthood Keys,” *New Era*, May 2012, 38.
9. *지침서 제2권*, 2.1.1.
10. 경전 안내서, “성전, 주의 집”; [scriptures.lds.org](http://scriptures.lds.org).
11. 엠 러셀 벨라드, “이것이 곧 나의 일이며, 나의 영광이니라”,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9쪽.
1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57쪽; 강조체 추가.
1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여성의 도덕적 힘”,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30쪽.
1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56쪽; 강조체 추가.



# 이탈리아의 후기 성도들: 신앙의 유산

리아 맥클라너한

**이**탈리아 지역의 교회 역사는 일단의 충실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본거지로 삼았던 신약 시대부터 시작된다. 성경에는 로마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서기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회의 지부는 “여러 해 전부터”(로마서 15:23) 그곳에 있었다.

바울은 로마 회원들이 “선함이 가득하[다]”(15:14)고 말했다. 바울은 일부 회원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의 서한에는 그가 인사를 보낸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길게 적혀 있다.(16:1~15 참조)

바울은 그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격찬하며 자신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그는 회원들을 몹시 보고 싶어했으며 조만간 그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랐다.(1:8~15 참조)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그럼에도 교회 회원들은 바울이 도착하기만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몇몇 형제들이 그를 만나러 70여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압비오 광장까지 갈 정도였다. 형제들을 보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사도행전 28:15)

그 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으며, 기독교인들은 네로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배도에 빠져들었지만, 초기 로마 성도들은 제국의 한가운데에 신앙의 유산을 남겼으며 기독교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로마 동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노숙자 쉼터의 청소 및 도색을 돕고 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로마 제국에 복속시켰다.

서기 45년: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내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64년: 기독교인들이 로마 대화재에 대한 누명을 쓰고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최초의 기독교인 로마 황제가 되어 기독교 예배를 합법화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고 기독교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 주께서 감춰 두신 사람들

1849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렌조 스노우(1814~1901) 장로는 이탈리아에 선교부를 조직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던 중에 그는 발도파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발도파는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 산맥에 거주하는 신앙 공동체였다.

과거에 발도파는 종교 문제로 7세기에 걸쳐 극심한 박해를 받은 역사가 있었다. 종교 개혁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기 교회가 배도에 빠졌음을 가르쳤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갈라섰고 이단으로 내몰려 여러 도시에서 쫓겨나 고문당하고 학살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단념하는 대신 북부의 산악 지방으로 피신했다.<sup>1</sup>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발도파에 대해] 생각하자 빛이 한꺼번에 내 마음 속으로 밀려들어왔다.” 그는 집으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주님께서 한 백성을 알프스 산맥 한 가운데 감춰 놓으셨다고 믿습니다.”<sup>2</sup>

이탈리아의 다른 지방은 선교 활동에 호의적이지 않은

법령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스노우 장로가 도착하기 2년 전, 피에몬테 지방에 살던 발도파는 수 세기에 걸친 박해 끝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sup>3</sup> 이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놀라운 꿈과 시현을 보고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sup>4</sup>

1850년 9월 19일, 스노우 장로는 두 선교 동반자를 대동하고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이탈리아를 헌납했다. 스노우 장로는 “그날부터 우리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sup>5</sup>라고 기록했다.

그 후 4년에 걸쳐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성공과 반대를 동시에 겪었다. 그들은 선교 소책자 두 권과 이탈리아어 물문경을 출판했으며 많은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러나 1854년경, 선교 사업이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었고, 가장 충실한 개종자들은 유타로 이주했으며, 박해는 날로 커졌다. 1862년에는 모든 전도 활동이 중단되었고, 1867년에는 선교부가 폐쇄되었다.

\* 초기의 모든 날짜는 추정임.

이탈리아 선교부가 운영된 기간은 단 12년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에 열두 가족과 일곱 명이 개종하여 유타로 이주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발도파는 유타 지역 교회에 힘을 불어넣었으며, 현재 수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로키 산맥의 후기 성도들과 합류하고자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난 72명의 충실한 발도파 조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6</sup>

### 사업을 서두름

이탈리아 선교부가 문을 닫은 이후로 이탈리아에서는 선교 사업이 거의 백 년 동안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때, 미국인 후기 성도 군인들이

약 30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했다. 1982년 무렵에는 그 수가 2배로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더욱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4개 스테이크가 새로 조직되어 스테이크 수가 일곱 개로 늘어났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약 25,000명의 후기 성도가 있다.

### 교회를 세움

칠십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는 1854년에 유타로 이주한 발도파 개종자 필립 카든의 수천 명에 달하는 후기 성도 후손 중 한 사람이다. 카든 장로는 처음에는 1960년대에 새로 문을 연 이탈리아 선교부 선교사로서, 나중에

▶ 1173년: 프랑스 리옹의 발도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원래의 복음으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1215년: 발도파의 추종자들, 즉 발도파의 일부가 이탈리아에 살았는데 이단으로 몰려 박해를 받았다.

1843년: 주세페(조셉) 토론토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최초의 이탈리아인이 되었다.

1848년: 피드몬트 사르디니아의 카를로 알베르토 왕이 발도파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



◀ 1850년: 로렌조 스노우 장로가 조셉 토론토 장로와 비 에이치 스텐하우스 장로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1852년: 이탈리아어 물문경 출판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 주둔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복음의 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일요일에 모임을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탈리아의 미군 기지에 후기 성도 군인들이 배속되면서 그 활동을 이어갔다.

그 후 20년에 걸쳐 주님은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셨다. 이탈리아인들이 인근 국가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폴리와 베로나에 있던 군인 회원 그룹들은 스위스 선교부의 지시에 따라 지부로 조직되었다. 선교부에서는 물문경을 이탈리아어로 다시 번역해서 출판했다. 선교사들이 이탈리아로 파견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964년에 이탈리아는 스위스 선교부 산하 지방부로 조직되었으며, 곧이어 이탈리아어를 하는 선교사들이 여러 도시로 보내졌다. 1966년에는 이탈리아 선교부가 조직되었는데, 기존 이탈리아 선교부가 문을 닫은 지 99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장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탈리아 재현납 기도를 드렸다.

선교부가 개설된 후 10년 동안, 이탈리아 지역 회원 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운데)가 새로 조직된 이탈리아 선교부 소속 선교사를 만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 회장으로서 조상의 땅에서 주님의 사업이 펼쳐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1983년에 카든 장로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당시, 로마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당이 임대 건물이었다. 그때는 교회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현지에 있는 회원들이 분담금을 내야 했다. 여러 채의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기금이 필요했기에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카든 장로는 2005년에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이탈리아 로마 스테이크가 조직되는 현장을 직접 지켜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경험이었다. “그곳에 신권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신권 열쇠, 피난처의 경전적 해석인 스테이크가 이제 로마에 있습니다.”

### 로마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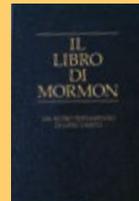
200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 이탈리아 성도들을 만나 봅시다: 세 명의 이탈리아 후기 성도가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서 온라인 기사로 찾아볼 수 있다.

1854년: 박해가 심해져 선교사들이 스위스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의 선교 사업이 시들해졌다. 발도파 개종자들이 유타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862년: 이탈리아에서 모든 전도 활동이 중지되었다.

1944년: 후기 성도 군인 회일 그룹이 이탈리아에 조직되었다.



◀ 1964년: 교회가 이탈리아어 몰본경을 새로 출판했다. 스위스 선교부가 이탈리아 지방부를 조직했다.

▶ 1966년: 이탈리아 선교부 조직.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가 복음 전도를 위해 이탈리아를 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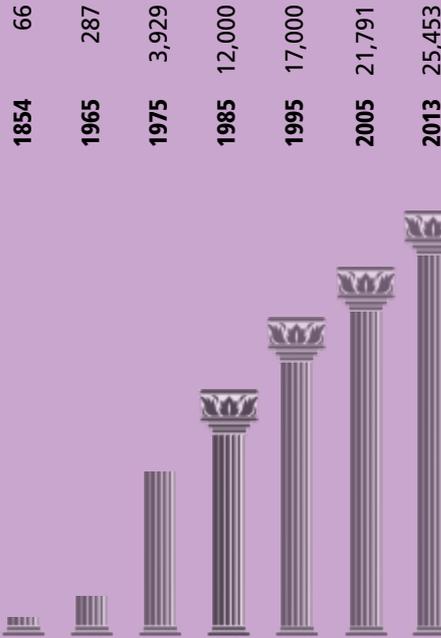
불가능해 보였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고려한 끝에 이탈리아 회원들은 그 해 성탄절에 사용할 돈을 모아 건축 기금으로 내기로 했다. 많은 가족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 성탄절 트리 밑에 그들의 희생을 나타내는 벽돌 한 장을 놓았다.

“그 일은 정말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카든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기부금이 건물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그 일과 더불어 성도들이 꾸준히 충실한 십일조로 바쳤기에,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선교부와 로마 전역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적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에 스테이크가 조직되고 성전이 건축될 정도로 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기까지는 회원들이 바친 헌신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sup>7</sup>



시칠리아 해변에 있는 카타니아 워드의 집회소. 카타니아 지부는 이탈리아 선교부가 조직되고 1년 후인 1967년에 만들어졌다.

### 이탈리아의 회원 수



### 이탈리아의 교회 현황\*

- 회원: 25,453명
- 선교부: 2개
- 스테이크: 7개
- 와드: 46개
- 지부: 52개
- 지방부: 5개
- 성전: 1개(건축 중)
- 가족 역사 센터: 49개

\* 2013년 12월 현재

몬슨 회장이 로마 성전 건축을 발표하자 컨퍼런스 센터 여기저기서 경탄하는 소리와 흥분 어린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이탈리아에서 위성으로 대회를 지켜보던 성도들은 기쁨에 들떠 소리쳤다. 한 자매는 이렇게 기억한다. “우리는 마음 가득 기쁨에 들떠 마치 날개가 달린 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회원들은 성전이 차지하는 심오한 영적 중대성을 알 뿐 아니라 이 도시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안다고 카든 장로는 말한다. “로마의 통치와 권력이 한 시대를 풍미할 때 세상에 크나큰 기여를 했던 탐험가들, 예술가, 과학자, 발명가들이



1972년: 해롤드 비 리 회장이 이탈리아 회원들을 방문함으로써 이탈리아를 최초로 방문한 교회 회장이 되었다.

1981년: 이탈리아의 최초 스테이크인 이탈리아 밀란 스테이크 조직

1993년: 교회가 공식적으로 소유한 재산 및 정부가 인정하는 결혼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인정을 받았다.



2008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이탈리아 로마 성전 건축을 발표했다.

2012년: 교회는 이탈리아에서 종교에 부여되는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얻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종교적 힘이 기독교를 세상 곳곳에 소개하는 데 일조했던 것은 축복이었으며, 이제 로마 역사의 일부가 된 그 축복 위에 주님의 성전이 은혜의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공식에서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건축될 성전은 후기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sup>8</sup>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탈리아 회원들은 스위스 베른 성전을 이용해 왔으며, 일부 회원들은 그곳까지 이틀에 걸친 여행을 감수하기도 했다. 전에 로마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고 지금은 지역 칠십인인 마시모 드 페오 장로는 후기 성도들이 오랜 세월 행한 봉사과 희생을 주님께서 보셨으며 성전을 바라는 그들의 갈망을 인정하신다는 표시가 바로 로마 성전이라고 믿는다.

성전 건축 발표가 났을 때, 드 페오 장로는 마치 운동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역전승의 감격과도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 기쁨은 전세에서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느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기쁨일 것이다.

성도들은 껴안고 웃음 짓고 눈물을 흘렸다. 참된 행복이 그곳에 있었다.

“이 시대에 특히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놀랍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드 페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 중에서도 이 지역을 크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sup>9</sup>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주

- Ronald A. Malan, “Waldensian History: A Brief Sketch,” Waldensian Families Research, [www.waldensian.info/History.htm](http://www.waldensian.info/History.htm) 참조.
- Lorenzo Snow, *The Italian Mission* (1851), 10-11.
- Lorenzo Snow, *The Italian Mission*, 10-11.
- Diane Stokoe, “The Mormon Waldensians”(master’s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1985), 26-27. 그런 꿈의 한 예에 대해서는 Elizabeth Maki, “Suddenly the Thought Came to Me”: Child’s Vision Prepares Her Family for the Gospel,” June 3, 2013, 참조.
- Lorenzo Snow, *The Italian Mission*, 15, 17.
- Stokoe, “The Mormon Waldensians,” 1-5, 71-84.
- 크레이그 에이 카든, 2013년 6월 글쓴이와의 면담에서.
- Thomas S. Monson, in Jason Swenson, “Rome Italy Temple Groundbreaking,” *Church News*, Oct. 23, 2010, [ldschurchnews.com](http://ldschurchnews.com).
- “Interview with President Massimo De Feo—Italy—Episode 1,” *Into All the World*(archived radio program); [mormonchannel.org](http://mormonchannel.org).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부름

**이** 스라엘의 역사 대대로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거나, 사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되거나, 이방인들과의 생활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표준과 계명이 약화되면, 성약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시 시온을 세우도록 광야로 보내집니다.

구약 시대에 성약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갈대아, 곧 문자 그대로 바벨론에서 도피해야 했으며 현재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가나안으로 와서 성별된 삶을 살았습니다.(아브라함서 2:3~4 참조) 그러나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시온을 잃고 머나먼 이교도의 나라 애굽에서 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출애굽기 1:7~14 참조) 따라서 약속의 자녀들을 다시 광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여러 세기가 지나지 않아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리하이라는 선지자가 이끄는 한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슬프게도 바벨론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니파이후서 2:2 참조)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새로운 대륙으로 가서 아주 새로운 개념의 시온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니파이전서 18:22~24 참조) 그런 탈출을 야렛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의 조상들도 과거에 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이더서 6:5~13 참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배하기 위해 살던 땅을 떠난 일단의 사람들로부터 미국 개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복음의 회복을 기념하는 모든 사람에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 중 하나였던 한 저명한 학자는 이 경험을 기독교인들의 “광야로의 부름받음”, 즉 구세계의 불경스러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다시 한 번 천국의 방식을 구현하고자 한 현대 이스라엘인들의 노력이라 설명했습니다.<sup>1</sup>

이제 마지막 탈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시온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여 지금보다는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후기의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종교적 조상들을 인도했던 우리 교회의 탈출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뉴욕 주부터 시작하여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주리를 거치며 계속 쫓겨 다니다가 결국 일리노이에서 살해당했던 것과 더불어 우리는 이 후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은둔처를 찾아나서는 현상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판 모세로 추앙받는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이 성도들을 이끌고 산악 지대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왔고, 그들은 지친 발걸음을 떼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 서편에 하나님 준비한  
그 땅에 가리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리  
성도들 복된 곳<sup>2</sup>

시온,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4,000년이 넘는 성약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달아나고 찾습니다. 도망하고 정착합니다. 바벨론에서 탈출합니다. 시온의 방벽을 쌓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 우리가 있는 곳에 시온을 건설합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가 보이는 많은 고유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방식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빠르고 크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뀐 점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는 달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는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영국을 떠나, 커틀랜드를 떠나, 나부를 떠나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브리검 영이 우리 모두에게 말했듯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프라이팬 밖으로 쫓겨나 불 속으로 내던져졌고, 불 속에서 뛰쳐나와 바닥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 머물 것입니다.”<sup>3</sup>

물론 이 말은 세계 곳곳의 교회 회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인 이 후기에 우리는 달아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안에 영구히 자리 잡고 우리 가족과 토대를 굳건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시온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이제 우리는 시온을 우리가 살아 갈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갈 방식으로 여깁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 세 가지 사건과 세 가지 교훈

1. 몇 년 전에 귀환 선교사인 제 젊은 친구는 유타 주의 한 대학 농구팀의 선수였습니다. 그는 상당히 훌륭한 젊은이였고 아주 좋은 선수였지만, 자신이 바라던 만큼 경기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실력이 당시 그 팀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육계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제 친구는 코치들과 팀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자신이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다른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새 학교에서는 일이 잘 풀려 제 친구는 곧 선발 출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팀의 경기 일정에 따라 이 젊은이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예전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밤 관중석에서 아주 심한 야유가 이 청년에게 쏟아졌습니다. 신희인 이 청년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나 도발적 환경에서도, 또는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자신의 종교를 문간에 맡겨 두지 않습니다**

실일조를 내고, 장로 정원회에서 봉사하며, 청소년들에게 사랑이 깃든 봉사도 하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곧 태어날 아기를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는 청년으로서, 그가 어떤 운동을 하든, 어느 대학교에 다니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든 간에 그런 심한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정팀의 감독은 농구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서, 그 굉장한 경기를 마치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네는 여기 출신이고 잘 했었잖아. 다들 자네를 잘 알 텐데. 다 자네 친구들이잖아.” 하지만 그보다



최악의 말은 감독이 어리둥절해하며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네 교회에 다니잖아?”

2. 저는 한 스테이크에서 독신 성인을 위한 영적 모임에 연사로 초대되었습니다. 스테이크 센터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30대 정도가 되어 보이는 한 여성도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여성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문신도 하고 귀걸이와 코걸이를 요란하게 하고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을 고슴도치처럼 세우고, 치마는 아주 짧고 웃옷도 정숙하지 못했습니다.

불현듯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여성은 비회원으로, 주님께 인도되어 복음을 통해 삶에 필요한 평안과 방향을 찾기 위해 이 영적인 모임에 찾아왔거나, 아니면 더 좋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데려온, 방황하는 영혼이 아닐까? 아니면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가 회원들에게 바라고 권장하는 표준에서 떨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떤 끈이 남아 있어서 그날 밤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아닐까?

3. 미주리 캔자스시티 성전 헌납에 참여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아이작 프리스톤 형제님 댁에 묵었습니다. 그분은 경찰관이었고 미주리 리버티 스테이크의 대제사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는 어느 늦은 밤, 도시의 위험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에 따라 조사를 해 보라는 연락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음악 소리로 시끄럽고 대마초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여성과 여러 남성이 상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술을 마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침대도, 매트리스도, 베개도, 아무런 침구도 없이 더러운 바닥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잠을 청하는 아이들, 두 살에서 여덟 살에 이르는 그 다섯 아이들을 그들은 까맣게 잊은 게 분명했습니다.

프리스톤 형제님은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려고 주방 찬장과 냉장고를 여기저기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들보다 뒷마당에서 짓고 있던 개가 먹을 것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침실에서 시트도 없는 매트리스를 하나 찾았는데, 그것이 그 집에 있는 유일한 매트리스였습니다. 그는 여기저기를 뒤져서 시트 몇 장을 찾아내 매트리스에 씌우고는 다섯 아이 모두를 임시변통으로 만든 그 형편없는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 다음 눈물을 머금은 채 무릎을 꿇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고, 아이들에게는 잘 자라는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자 한 아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와서 손을 꼭 붙잡은 채 “아저씨, 제발 저를 입양해 주시겠어요?”라고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으나 프리스톤 형제님은 그 아이를 침대에 다시 눕혔고(남자들은 이미 다 달아난 상황이었습니다.) 약물에 취해 있는 아이들의 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더라도 하늘에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후로 더 많은 변화가 따를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sup>4</sup>

이 세 사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사건들은 실생활에서 일어난 사소하고 서로 매우 다른 바벨론에 관한 예입니다. 하나는 농구 경기에서 일어난 개탄스러운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또 하나는 우리와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때 겪게 되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어려움이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매우 크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교훈 1: 여러분의 종교를 문간에 맡겨 두지 마십시오**

먼저, 농구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 다음 날, 그 사건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그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자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농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열기를 견뎌 낼 수 없으면, 선수 생활을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돈을 내고 경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종교는 문간에 맡겨 두고 와야죠.”

“우리는 종교를 문간에 맡겨 두고 읊니까?” 21세기에 시운을 세우기 위한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종교를 문간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제자 정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 본분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선지자 엘마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모사이야서 18:9) 합니다. 그저 어느 시간이나 몇몇 장소에서, 또는 우리 팀이 크게 이기고 있을 때에만 그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도발적 환경에서도, 또는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자신의 종교를 문간에 맡겨 두지 않습니다.

#### **교훈 2: 연민을 보이면서도 계명에 충실하십시오**

이제 영적 모임에 참석했던 그 젊은 여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여성에게 어떻게 대하든, 영원한 규칙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종교적 믿음과 복음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우에 그녀가 범한 것보다 더 큰 반칙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도 없이, 표준도 없이, 신성하게 규정된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그런

계명을 의로운 방법으로, 그것도 최선을 다해 구주께서 생활하신 방식과 옹호하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진리를 가르치고, 죄인을 용서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로 알게 된 그녀를 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녀가 하나님의 딸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녔다는 점부터 기억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가 교회 모임을 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도록 도우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과 그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구주께서 하셨을 만한 일을 하려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요한복음 7:24)는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사회적 친선이나 정치적 편이나 그 외의 어떤 이유로도 절대 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돕기 위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은 계시된 진리라는 안전한 발판뿐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의 기본적 특성과 요건인 동정심과 사랑이 계명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이러한 방식으로 생활하거나 행동해야 한다고 믿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하도록 하려 하나요? 그들에게도 선택의지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판단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강요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왜 어떤 원리를 지켜야 하고 어떤 죄를 반대하는지를 어디서건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여러 쟁점과 법률이 단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결과 면에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청소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이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판단을 내려서 빨간색 신호등일 때 다른 모든 사람도 차를 세우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택의지가 있지 않나요? 그들이 반드시 우리처럼 행동해야만 하나요?” 여러분은 그들이 빨간색 신호등에서 모두 차를 세우기를 바라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범법하거나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종교적 믿음과 복음에 대한 결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개선시켜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에 관해 침묵하시더라도 하는 것처럼, 또는 그런 것에 대해 대중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명이

중요하다는 듯이 행동할 자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더는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그에 따른 운영권을 허용하는 법률과 상황과 환경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에 거하되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도피할 수는 없고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들과 그분이 주신 율법에 따라 도덕적 입장을 취하되, 이해심과 큰 사랑을 지니고 온정 어린 마음으로 행하면서 우리 능력과 고결성을 몸소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교훈 3: 복음의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와 나라에 공헌하십시오**

우리 대다수가 경찰관이나 사회단체 요원이나 사법부 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복리와 지역 사회의 도덕적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서 빛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갈수록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종교 신념에 기초한 가치관에 대해 대중이 서로 이야기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종교적 신념은 빛과 지식과 지혜의 보고[로서] …… 놀라운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합니다.”<sup>5</sup>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지역 사회와 국가에 전해 주지 않는다면, 도덕적 행위를 법률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작 프리스톤 형제님처럼 그것을 시행할 경찰관은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식이나 옷도 없이 그 집에 있던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나이가 더 많아 죄과도 더 크고 책임도

더 많이 져야 할 그 어머니 역시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절차, 때로는 법적 절차까지도 고려하는 엄격한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적시적소에서 최선의 도움을 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책임하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종교를 문간에 두고 그런 상황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시대에 바벨론에서 달아나지 않고 바벨론을 공략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우리 종교를 삶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한결같이 실천한다면, 가족을 돕고, 이웃을 축복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후기 성도는 떡에 넣은 누룩, 결코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언덕 위에 세워진 등불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삶, 즉 살아 가고자 노력하는 네 삶의 방식과, 표준을 지키고자 기울이는 네 노력을 가상히 여겨 너를 인정하노라. 네 마음이 고결함을 내가 볼 수 있구나. 너는 무엇보다도 네 자신이 먼저 나온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마음을 담아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고, 내 복음을 수호하여 무엇보다도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죄나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더 낮게 하는 일에서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노력했다는 것을 안단다. 나는 참으로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했다고 믿는다.”

저는 이 필멸의 삶에서 바라는 그 무엇보다도 언젠가 그런 일이 꼭 세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시네”<sup>6</sup>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크게나 작게 혹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런 다음 우리와는 다르게 보이거나 다른 옷차림을 하거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런 후에(할 수 있다면) 능력이 닿는 한 폭넓게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분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은사와 관련하여,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시온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여 지금보다는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후기의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힘과 거룩함을 주실 것임을 저는 압니다. ■

“애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시네”, 2012년 9월 9일 유타 세인트조지의 텍사스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함. 말씀 전문을 [lds.org/broadcasts](http://lds.org/broadcasts)에서 볼 수 있다.

주

1. Perry Miller, *Errand into the Wilderness*(1956), 2-3 참조.
2.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3. Brigham Young, James S. Brown, *Life of a Pioneer: Being the Autobiography of James S. Brown*(1900), 121.
4. 아이작 프리스톤, 글쓴이에게 전해 준 경험, 2012년 5월 5일.
5. 쿠엔틴 엘 룩, “빛이 있으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8, 29쪽.
6.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후기 성도는 떡에 넣은 누룩, 결코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언덕 위에 세워진 등불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르게 말하며 관대한 말과 행동으로 다가간다면, 구주께서는 그분의 일을 의 안에서 단축시켜 영광 중에 오시며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대로 생활하고 삶과 교회와 사회를 발전시키려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제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 여념이 없기만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가 신앙을 널리 전하고 선행을 하는 중에 깜짝 놀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프리, 너의 직함이 아니라 너의

## 묘비에 두고 온 편지

**20**03년 여름, 나는 미국 미시간에서 종고조부인 로버트 홀에 대해 조사했다. 여행을 마칠 무렵, 20년 전에 갔던 공동묘지를 다시 들렀다.

전에 그 공동묘지에 갔을 때에는 홀이란 성이 새겨진 여러 묘비 가운데 하나에 꽃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짧은 편지를 쓰고 날짜를 적고서 비바람에 망가지지 않도록 코팅을 했다. 나는 그 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묘비에 내려놓으며 로버트 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 줄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바랐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그 편지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먼 사촌뻘 되는 디키 벤틀리라는 사람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어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오후 3시에 딸기를 사려고 가게로 가다가 플레인즈로드 공동묘지에 잠시 들러 조상들의 묘를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가 본 적이 없었지요. 무덤 옆에 당신이 남긴 엽서가 있었습니다.”

디키가 공동묘지에 들렀던 날은 내가 편지를 남기고 간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얘기를 나누다가 그가 공동묘지에서 80킬로미터도 더 떨어진 힐즈데일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묘비에 내려놓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랐다.

몇 달 후,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시간으로 달려가 디키를 만났다. 그는 자기 집 바로 건너 편에 있는 공동묘지에 친척들이 묻혀 있다며 거기로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공동묘지에 홀이란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네 개 있는데, 그중 두 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공동묘지에서 디키는 내게 그 묘비들을 보여 주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두 개의 묘비는 마틴 홀과 앤나 홀의 것이었다. 기록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지만, 마틴 홀을 조사했던 기억이 뚜렷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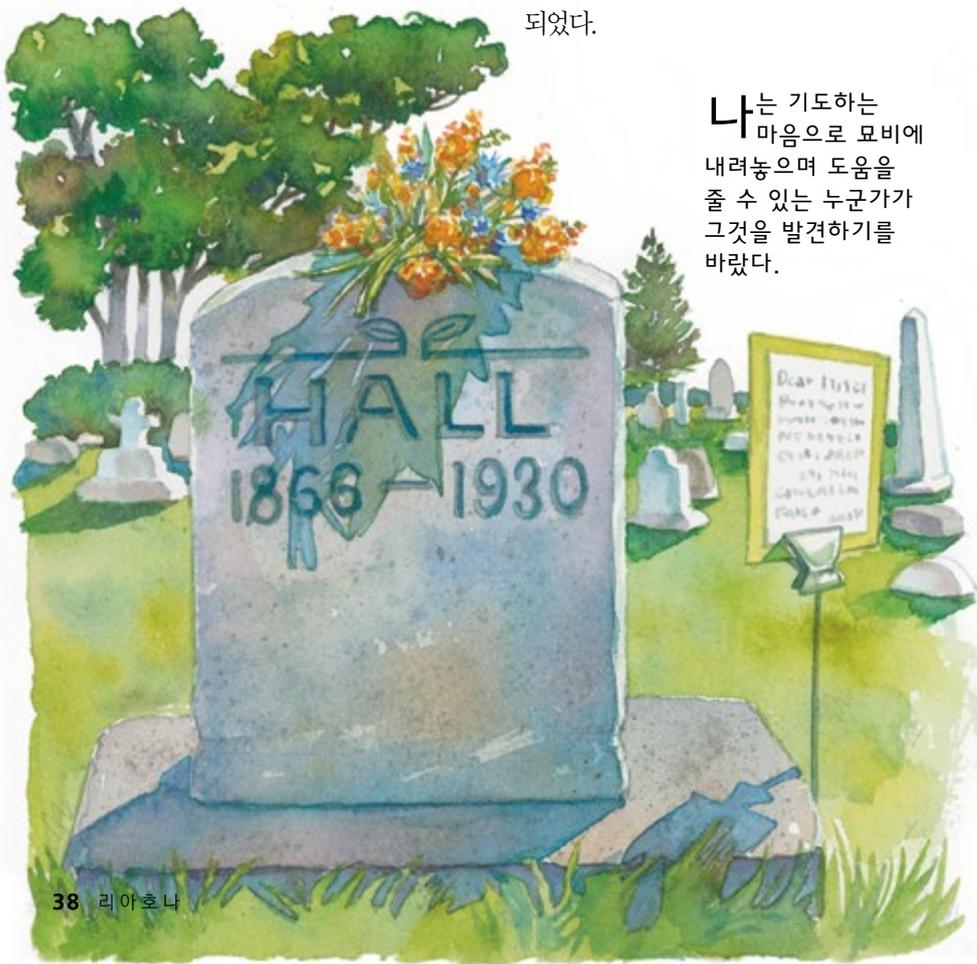
우리는 사망 기록으로 마틴의 부모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서둘러 지방 법원으로 향했고, 문 닫기 한 시간 전에 도착했다. 기록이 있었다! 마틴의 부친이 바로 로버트 홀이었다! 나의 오랜 조사가 끝났다고 성신이 내게 알려 주었다.

디키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로버트 홀을 찾은 것이 “거의 영적”인 일 같다고 말했다. 영이 인도했음을 알기에 나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20년 전에 편지를 놓아 두었더라면 그간 생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힐즈데일로 이사한 지는 3년밖에 안 됩니다.” 디키가 말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가족 역사 사업이 실로 하나님의 사업이고, 그분은 우리의 의로운 노력을 이끌어 주신다는 교훈을 배웠다. ■

메리앤 채플린 스토펠, 미국 캘리포니아



## 주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실까?

**네** 살 때 우리 아들은 “주여 큰 폭풍우 일고”(찬송가, 59장)를 불러 달라고 자주 보냈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는 후렴구를 부를 때면 아들의 작은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아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대답했다. 구주는 우리 아들의 영웅이었다.

그러던 우리 아들은 열세 살 때 큰 상심에 빠지게 되었다. 말은 고사하고 음식조차도 멀리했다. 전에 하던 모든 활동에 관심이 없어졌고, 특히 가족 기도나 가정의 밤을 질색해했다. 더는 교회나 복음에 관심이 없는 듯했다.

가족들이 그 아이를 위해 자주 기도하고 금식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많은 형제 자매들,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도 그렇게 했다.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며 엘마 일세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느꼈을 그런 마음을 느꼈다.(모사이야서 27:14, 22~23 참조)

우리는 아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에 가족 기도나 가정의 밤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좋지만, 우리와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제3니파이 18:21)는 구주의 말씀을 따르자,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이 더욱 강해졌다. 영이 우리 가정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우리 아들은 비록 말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 후 2년 동안 조금씩 우리의 기도와

가정의 밤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가정의 밤을 하는데 아들이 구주에 대해 간증을 하더니 자기가 가정의 밤을 준비해도 되는지 물었다. 아들은 가족 기도에 참여하고 즐겁게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구주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느꼈을 때 찾아온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다.(엘마서 5:26 참조) 주님께서는 그분의 치유하는 힘으로 우리 아들을 실제로 구원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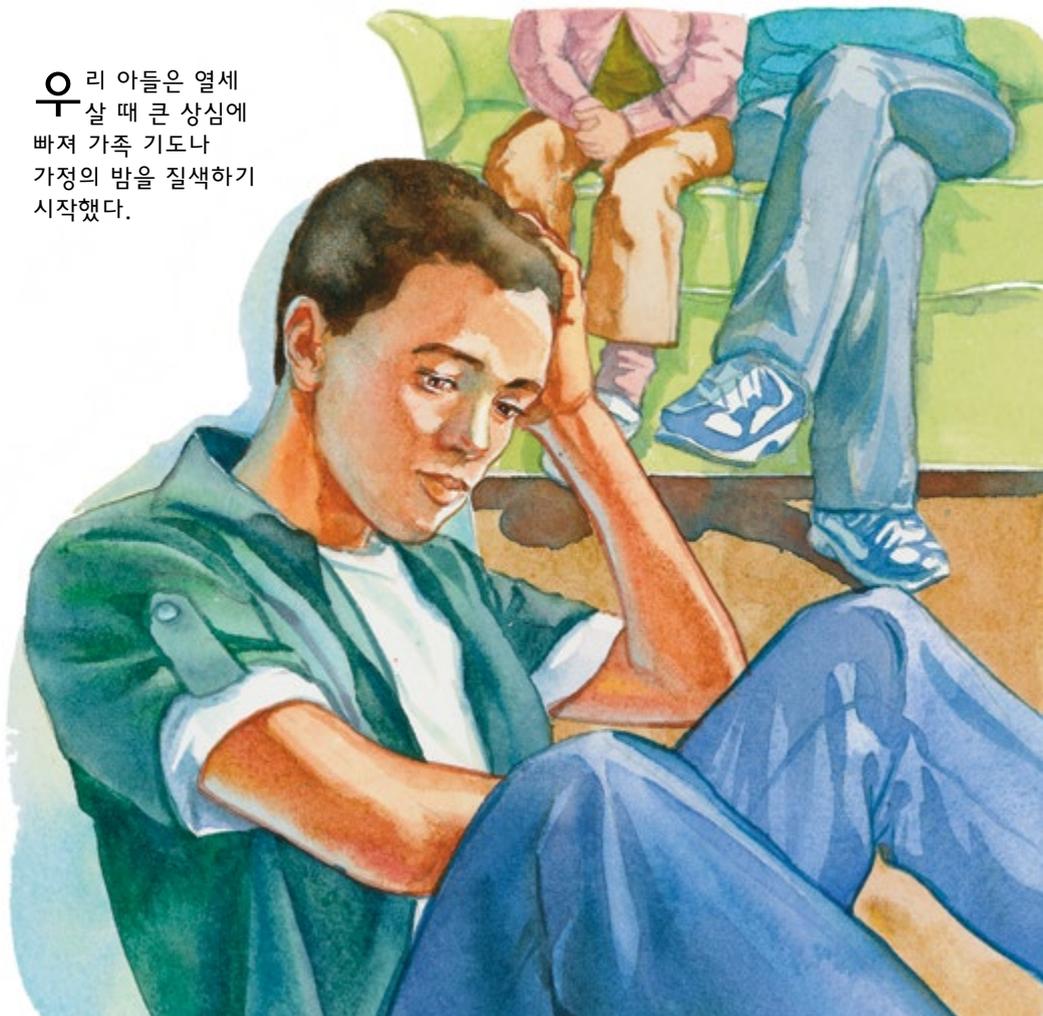
아들은 다시 한 번 행복을 느끼고 삶에 활기가 가득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들은 구주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이 겪은 시련은 강한 간증을 정립하고 구주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들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선교부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했다. 그 아이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 성전에서 결혼했고 지금은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나는 구주께는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생과 다음 생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권능이 있음을 안다. ■

아나 크레마스치 자나르투, 칠레 산티아고

**우** 리 아들은 열세 살 때 큰 상심에 빠져 가족 기도나 가정의 밤을 질색하기 시작했다.



## 몰몬이세요?

**나**는 직장 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국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참석자는 수백 명이나 되었지만, 우리 고향에서 온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하루는 모든 참석자를 위한 저녁 만찬이 있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알코올 음료를 무료로 주문할 수 있는 표를 각 사람에게 네 장씩 나누어 주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이런 것에 유혹받기가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문간에서 있는 그 사람에게 표를 돌려주었다.

나는 낯선 사람들 일곱 명과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물을 마시면서 식사를 했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직업상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튿날 아침 식사 시간에 나는 저녁

만찬을 함께 즐겼던 한 신사와 인사를 나누었다. 명찰을 살펴보니 그는 내가 35년간 떠나 있었던 내 고향에서 온 사람이었다. 정말 반가웠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고 결혼한 후 먼 곳으로 이사했었다.

우리는 서로가 똑같이 잘 아는 장소들과 행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아직도 내 가족들이 고향에 남아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그들과 연락하며 지낸다고 답했다. 그는 내 친구들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중 몇 명의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두어 명의 이름을 듣더니 내 말을 가로막고 물었다. “잠깐만, 몰몬이세요? 지금 이름을 대신 분들은 모두 몰몬이예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한 시민들이며, 그 지역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또 모두에게 어떻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내 친구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의 복리를 옹호해 왔는지 설명하며 내 친구들과 교회를 칭찬했다.

헤어지면서 나는 만약 그 알코올 음료 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친구들로부터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배웠었다. 만일 그 표를 썼더라면 내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불편하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합당하고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친구들의 모범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35년이나 흐른 지금, 고향으로부터 3,22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말이다. ■

캐롤 에이 보우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식**당으로 들어서자 알코올 음료를 무료로 주문할 수 있는 표를 각 사람에게 네 장씩 나누어 주었다.

## 내 기도에 응답하신 선지자

2학년 말에 나는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했다. 합격은 못 했지만, 이듬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었다. 하지만 한 해를 더 기다려 졸업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내 전공과 가장 밀접한 분야는 사진이었다. 그래서 전공 변경에 대해 기도를 했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단지 학위를 받고 싶을 뿐이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 나는 사진의 사회적 역사를 다루는 과목과 영화 과목을 수강했다. 두 과목 모두 기대되었다. 그런데 영화 강의 요목을 살펴보다가 이 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를 많이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 과목 강사는 성교 폭력과 충격적인 내용을 다룬 사진을 공부하게 될 거라고 공지했다. 강사는 이 시대의 사진 대부분이 그러한 주제를 다룬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복음은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데, 이것들은 필수 과목이었다.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성구가 떠올랐다(요한복음 15:19 참조). 이러한 과목들을 수강하면서도 나는 그것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할 신앙을 갖기 위해 기도했다. 또한 아내와 부모님, 형과 함께 상의했다. 형과 이야기했을 때 형은 다음 성구를 상기시켜 주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분야에 있던 말인가? 터널 끝을 알리는 빛이 코앞에 보이는데, 비록 잠시지만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단 말인가?

어느 날, 밤 늦도록 아픈 아기 곁을 지키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몬슨 회장님이 2011년 10월에 하셨던 연차 대회 말씀을 틀게 되었다. 몬슨 회장님이 저하되고 있는 사회의 도덕관념을 언급하시며 많은 사람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

곧이어 그분은 바로 내가 들어야 할

어느 날, 밤 늦도록 아픈 아기 곁을 지키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말씀을 해 주셨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버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하겠다는 가장 큰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표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sup>1</sup>

그 말씀이 큰 권능으로 다가와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살아 계신 선지자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졸업 계획을 늦추었다. 나는 우리가 선지자를 따르고, 세상의 견해를 거부하며, 계명을 지키고, 복음 표준을 지지할 때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안다. ■

데릭 필즈, 미국 미주리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83쪽.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단 제보좌

# 행복의 길을 따라

**대** 체로 청소년 시절은 인생을 설계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청년 성인 여러분은 미래를 향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운동 경기에서 거두는 성취, 위대한 예술 작품 창작, 또는 학위 취득이나 전문 직업을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원 중 몇 개나 실현될까요? 인생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행로를 순식간에 바꿔 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들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은 불과 한 번 보는 것, 한 차례의 대화, 계획에 없던 한 번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선교사로 나가기에 가능한 연령을 발표하신 것도 그런 기회에 속합니다.<sup>1</sup> 인생행로를 변경하는 일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좌절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낳기도 합니다.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도 실패를 두려워하여 노력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 교육,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루는 일을 미루거나 안정된 직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 그저 “어울려 다니기”를 선호하거나 부모님의 안락한 집에서 놀러 사는 것 등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또 다른 철학은 “내일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라”(니파이후서 28:7)는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이런 철학은 결과에 개의치 않고 즉각적인 만족에 탐닉하는 것을 두둔합니다.

## 행복의 길

두려움이나 의심 또는 방종이 아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평안과 자신감, 평온을 가져다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복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을 만드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기초를 두는 영적 비전과 원리에서 생겨나는 결실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예기치 않은 도전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외적 환경보다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원리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원리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 1.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라

최근에 저는 가족과 함께 프랑스 남부에서 휴식을 취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뒤, 저는 야외에 있는 안락의자에 누워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섬광처럼 빛이 하나 나타났고, 그런 다음 두 개, 또 그다음에는 세



개가 보였습니다. 점차 제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무수한 별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은하수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대한 우주에 대해 생각하며, 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토록 웅대하고 장대한 우주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한 성구가 떠올랐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편 8:3~4)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위안을 주는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이다”(시편 8:5)

이것은 역설이자 창조의 기적입니다. 우주도 광대하고 무한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도 창조주 보시기에 영화롭고 무한하며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 육체적 존재는 매우 작지만 제 개인적인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을 비추고 의미를 주는 빛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나에게 친구가 있든 없든, 인기가 있든 없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헤아리시며, 몹시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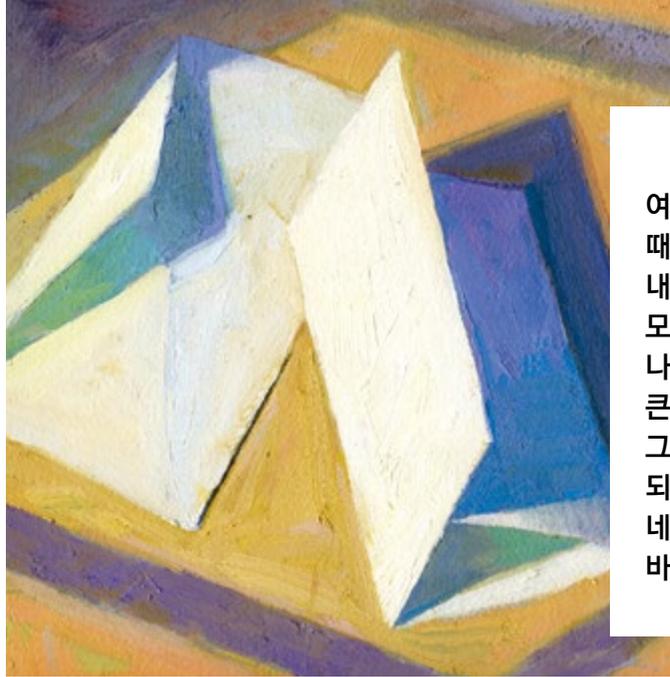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심과 사랑과 자신감으로 자신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원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시듯이 여러분도 안다면 그것이 삶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탐구하고 연구하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실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표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 2. 자기 자신이 되라<sup>2</sup>

자기 자신이 되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나는 이미 나인데 어떻게 내가 되라는 말입니까?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디어 미[Age of Reason]라는 영화는 성공한 은행가인 마저릿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으로 출장을



여러분이 전세에 있었을 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친애하는 나에게,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음을 미래의 네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다니며 회의에 참석하는 등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열성적인 구혼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 키울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마흔 살이 되던 날, 마저릿은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받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나에게, 나는 오늘 일곱 살이 되어 미래의 나인 네가 일곱 살 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해 주려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를 너에게 기억나게 해 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일곱 살 때의 마저릿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장의 편지에서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저릿은 어린 소녀였을 때 되고 싶었던 사람이 현재의 자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렸을 때 마음속에 그렸던 사람을 되찾기로 결정하자,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맙니다. 그녀는 가족과 화해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sup>3</sup>

여러분이 전세에 있었을 때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비록 잊어버렸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편지를 오늘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친애하는 나에게, 나는 미래의 나인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는지를 기억나게 해 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네가 기억하길 바란다. 나는 그분의 계획을 지지하기에, 지상에 가면 그분의 구원 사업을 돕고 싶어. 그리고 세세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네가 이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인생에서 커다란 모험 중 하나는 우리가 진실로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며, 그런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정체성과 우리 존재의 목적과 시종일관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 3.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선지자 말라기의 다음 가르침은 복음의 회복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조셉 스미스—역사 1:39) 회복 덕분에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받은 약속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축복문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한 지파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며, 그렇기에 여러분은 충실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받은 막대한 축복을 누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하리라”(아브라함서 2:10)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편,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일치할 것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것임을 보증합니다. 인생에서 소망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켜 그분의 뜻을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없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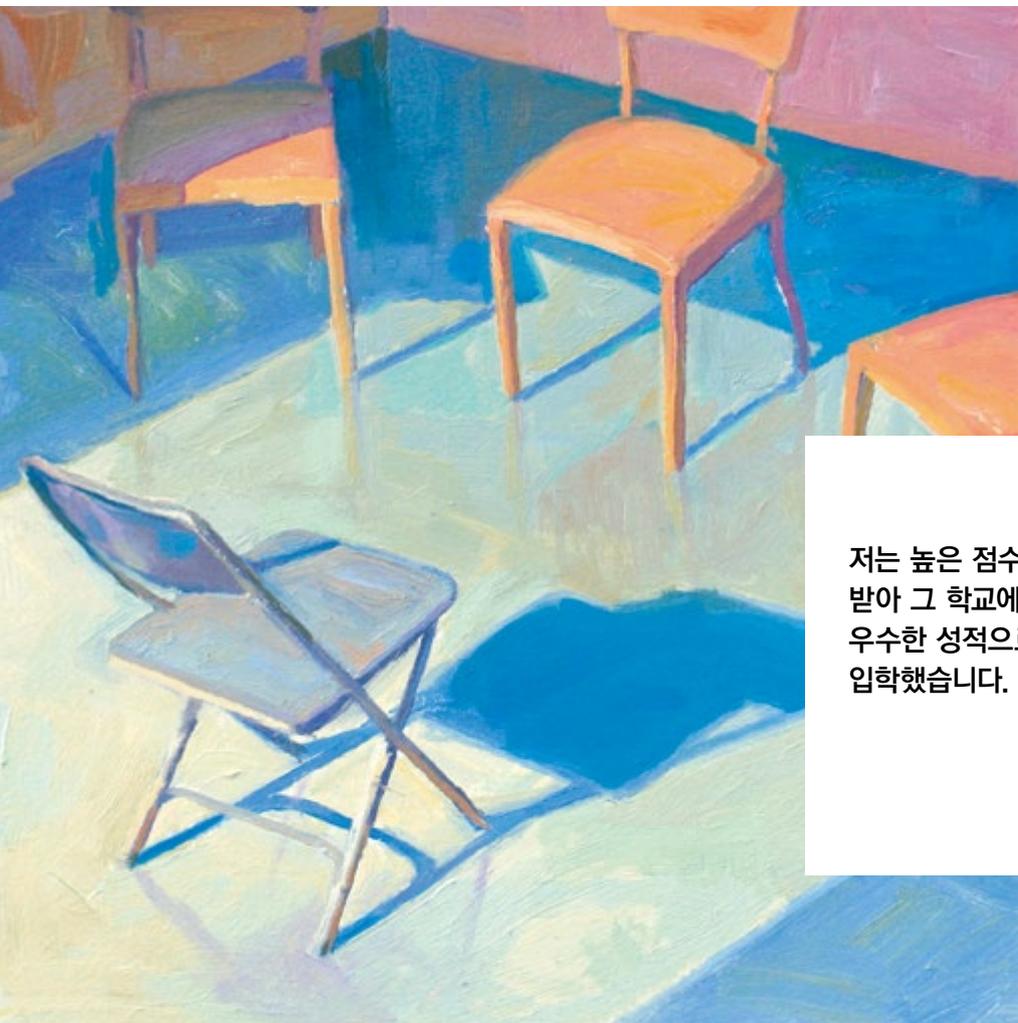
이 원리를 제 경험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프랑스 최고의 명문 경영 대학원에 들어가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 저는 일 년 내내 공부해야 했는데, 그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해 초에 저는 해야 할 공부가 아무리 많더라도 일요일 모임과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종교 교육원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청년 성인 와드에서 서기 부름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충실함을 알아보시고 제가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연말이 되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명문대의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신 있었던 구두시험에서 뜻하지 않은 재난에 봉착하여 몹시 열망했던 그 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꾸준히 충실함을 나타내 보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버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망한 학교에서

구두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의심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시험은 대학원 원장의 감독하에 면접관 앞에서 진행되는 면접이었습니다. 면접

**저는 높은 점수를 받아 그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초반부는 통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다음 질문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학생이 이 시험을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학생이 공부 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시다. 저는 일 년 동안 공부와 교회에 가는 것, 그 두 가지만 했습시다. 저는 면접관이 제가 이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할까 봐 두려웠습시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제 원칙에 충실히 남기로 마음먹었습시다.

저는 약 15분간 안식일 모임, 종교 교육원 수업, 워드 서기 일 등 제가 교회에서 한 일들을 설명했습시다. 설명을 마치자 대학원 원장이 말했습시다.

“나는 젊었을 때 미국에서 공부했지요. 당시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몰몬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고, 인간성이 정말 훌륭했어요. 그래서 나는 몰몬들을 아주 좋은 사람들과 여기지요.”

그날 저는 높은 점수를 받아 그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시다.

저는 주님의 친절하심에 대해 감사드렸습시다. 하지만 그 첫 번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시다. 그 두 번째 학교에서 저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습시다. 그들과 교제한 것은 직장 생활 내내 유익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저와 제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도 여러분이 소망했거나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그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꺾기에 속삭이는 이 고요한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음이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리와 성약 101:16)

###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만큼 밝다

제가 아내 발레리와 함께하는 인생 행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영생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삶 사이에 큰 차이를 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을 시작하고 싶었습시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지,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 보시기에, 우리는 큰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시다. 그분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시다.

모든 면에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분을 따르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시다.

저는 몬슨 회장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sup>4</sup>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외적 환경보다는 여러분이 따르고자 선택하는 원리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 원리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목표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런 후에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서는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분이 양육하시는 남성과 여성이 되십시오.

이생은 영원 속에서도 놀라운 한 순간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목표, 즉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

2012년 11월 12일 솔트레이크 테버내클에서 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 전문을 보려면, [lds.org/broadcasts](http://lds.org/broadcasts)로 가십시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5쪽 참조.
2. 이 문구는 저명한 그리스 시인 핀다로스가 한 말로 여겨짐. Pindar, *Pythian 2.72, Olympian Odes*, *Pythian Odes*, ed. trans. William H. Race (1997), 239 참조.
3. *L'âge de raison (With Love ... from the Age of Reason)*, directed by Yann Samuell (2010) 참조.
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 온라인으로

## 나누는 복음

마리아 마흔리-이그라질 아르두오 안다카

**나**는 담대하게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는 편은 아니었다. 친구들 다수가 내 종교를 알았지만, 간증을 나누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한 적은 없다. 하지만 누군가 교회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고쳐 주려고 노력했다.

대학 새내기 시절, 나는 토론회에 가입했다. 나는 그곳에서의 토론을 마친 후 그곳 회원들이 '물론'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올바르게 고쳐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내가 후기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꺼낸 것이었는데, 그날 많은 질문이 내게로 쏟아졌다. 나는 겁이 나서 대답을 회피할 뻔하기까지 했다. 나는 내 믿음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나누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드렸지만, 딱히 응답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며칠 뒤, 나는 페이스북에서 교회 지도자가 올린 기사를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교회 자료를 그렇게 게시할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나는 우리 토론 팀에서 질문받았던 주제들을 찾아보았고, 내 공간에 여러 링크를 올렸으며,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태그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리라는 생각이



**내 믿음에 대해 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토론 팀에서 우리 교회에 관해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진땀나는 일이었다.**

들었다.

내 신앙과 관련한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내 종교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해 왔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기본적인 내용의 답변을 해 주고 그와 더불어 교회 자료 링크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내 답변뿐만 아니라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도 볼 수 있게 된다. 좀 더 민감한

내용은 메시지를 보내어 개인적으로 답해 준다.

교회에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정말로 기쁘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 불쑥 교회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안절부절못한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주도적으로 교회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한다. 나는 이런 자료들이 회원이나 비회원 친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글쓰이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산다.

# 선택의지와 응답: 계시를 인식함

때로 그러한 소통을 가로막는, 뚫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이는 것은  
신뢰 속에 내디뎌야 하는 거대한 계단이었습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글썽이는 두 눈으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믿는 바를  
더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알고자  
여러 날 동안 고심하며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께서 알려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경전 위에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와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모두 응답하시면서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혼자서  
출구를 찾기로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긴급한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응답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도의 원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특권이며, 변하지  
않는 원리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신앙과

순종, 그리고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한 것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즉각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 쪽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특별히 구하지 않았는데도 영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그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 이곳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전과 마주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와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모두 응답하시면서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우리의  
행복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기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고, 경전을  
상고했으며,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성공을 바라시는, 사랑 많고 친절하시며  
지혜롭고 이해심 많으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께 다가가는 한 아이를 마음속에 그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것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할 때, 그분은 예 혹은 아니요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응답을 보류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진리에 따라 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대해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 사항을 모두 아시며, 그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므로, 그분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하십니다.

## 응답을 찾는 세 가지 방법

### 1.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증거를 찾으십시오

우리 중 다수가 그렇듯이, 올리버 카우드리도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미 주신 증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과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다음 계시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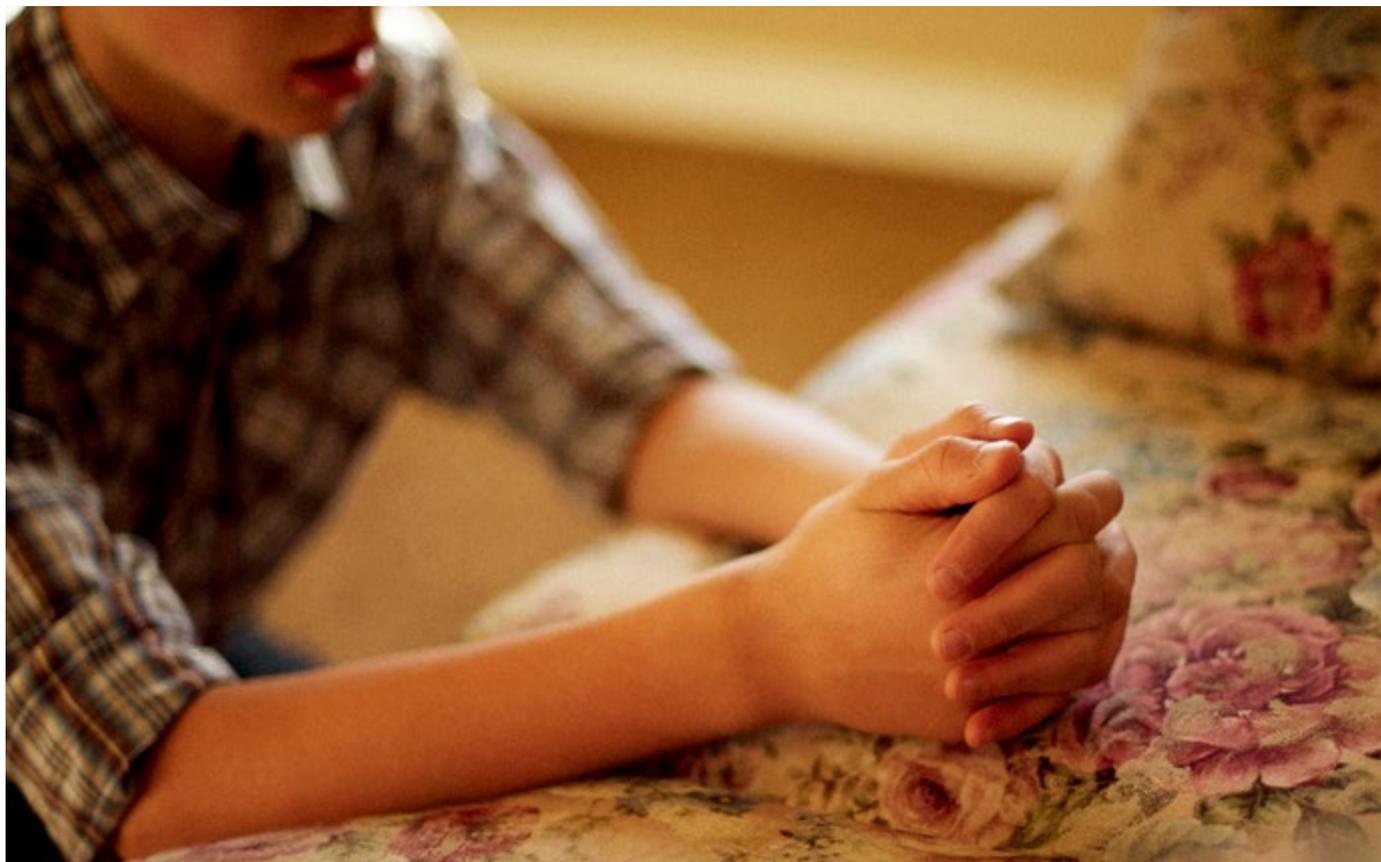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내게 물었음이라, 보라, 네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오지 못하였으리라.

보라, 네가 내게 물었고 이에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었음을 너는 알고 있나니, 이제 내가 이 일들을 네게 말함은 내가 진리의 영으로 비추임을 받아 깨닫게 된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6:14~15; 강조체 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성구들을 상고해 보고, 그분이 이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응답해 주셨을 증거를 주의 깊게 찾아보십시오.

### 2.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응답을 인식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거를 더 원하면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교리와 성약 6:22~23; 강조체 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문제를 연구하고 난 후 그것이 옳은지를 여쭙어 보라고 권고하심으로써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네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생각이 둔하여[지리라.]”(교리와 성약 9:8~9; 강조체 추가)

### 3. **그분이 응답을 보류하실 때에는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류하심으로써 제3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며, 우리가 필요한 경험을 하도록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그렇다라는 응답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응답을 주시면, 그것은 잘못을 방지하시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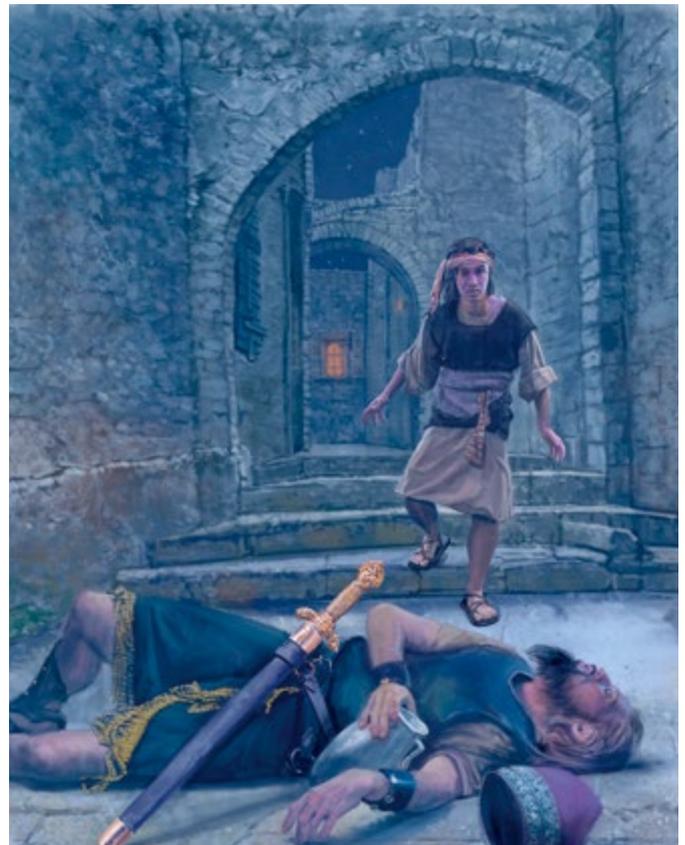
응답을 보류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고, 계명에 순종하며, 진리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의지로 성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사전 확인을 받지 않고서도 그분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결정을 하고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마냥 앉아서 기다리거나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대개 그 일을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작은 도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할 때 발견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주시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뭔가 옳지 않은 일을 시작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느낌을 감지함으로써 그와 같은 도움을 알아챵니다.

놋쇠판을 얻으려는 니파이의 노력은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 줍니다.(니파이전서 3:6~7 참조) 니파이는 두 차례 시도에서 실패를 하고도 여전히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니파이는 성 안으로 들어가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그런 후 다음과 같은 의미 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느니라.]”(니파이전서 4:6~7; 강조체 추가)

니파이는 기꺼이 최선을 다해 거듭 시도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으리라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니파이는 행동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인도를 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으로 다가가게 되고, 모친의 말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니파이전서 5:8; 강조체 추가) 얻게 되었습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행동해야 단계별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수동적으로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영적 율법을 따름으로써 영감을 얻고 행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함

때로 소망에 대한 확인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깊게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고백하건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의로 선택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 이 원리들은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홀로 남겨져서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 허우적거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구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영감을 구할 때 주님은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니다. 그런 속삭임을 받기 위해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노력하고, 때로는 분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응답이 한 번에 모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을 위해 아껴 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면 평안과 자존감, 그리고 사랑이라는 놀라운 감정을 맛보게 됩니다.

가장 곤경에 빠진 사람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왜일까요? 라테말라의 산악 고지대에서 회원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만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가기란 여간 큰 희생을 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성전을 방문하려면 일 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과 음식을 비축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면, 새 옷을 만들기 위해 실을 자아 염색하고 옷감을 짜는 등 힘써 일해야 합니다. 떠나면 길을 맨발로 걸어 산지를 벗어나 이사벨 호수를 건너면 그제서야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음식은 거의 바닥이 납니다. 지치고 피로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도착한 그들은 반짝반짝 빛이 날 때까지 몸을 닦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흰 옷으로 바뀌 입고서 영의 가르침을 받으며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습니다. 고지대에 사는 한 여성은 엔다우먼트의 의미와 그곳에서 느끼는 영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  
**때로는 소망에 대한 확인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

해의 왕국실에 들어서자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흐느끼며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20분쯤 하고서, 눈물로 옷이 다 젖은 채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심한 성전 메이트론이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아, 그래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계속 말했는데 제 말을 들으셨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조언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인생이란 실험실에서 그것을 철저히 시험했습니다. 저는 때로 그러한 소통을 가로막는, 뚫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이는 것이 신뢰 속에 내디뎌야 하는 거대한 계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먼저 깨끗한 생활을 하고, 합당한 동기를 지니며, 그분이 바라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도와 주고자 하십니다. ■



만약  
가슴속에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성신을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레이철 닐슨

**이** 말을 듣자마자 “우드 선생님\*을 세미나리에 초대하라.”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곧바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음악 선생님을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는 세미나리에 초대하다니!

세미나리 회장은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을 개최할 것이라고 우리 반에 공지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선생님 몇 분을 새벽 세미나리 시간에 모셔 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그 과제를 듣고서 일주일 내내 나는 우드 선생님을 모셔오는 것에

\* 가명

대해 생각했다. 세미나리에 가거나 음악 시간에 선생님을 뵈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다. “우드 선생님을 세미나리에 초대하라.”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음악 반에서 모두들 악기를 꺼낼 때, 나는 내 트롬본을 한쪽에 내려두고서 우드 선생님께 다가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 손이 떨렸지만, 입을 열어 선생님을 초대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드 선생님은 가겠다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왜 내가

매일 등교 전 새벽에 세미나리에 가는지 궁금해하셨으며, 더 알아보고 싶었다고 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슴속에 뜨거움을 느낀 것은 아니다.(교리와 성약 9:8 참조) 그러나 성신을 느꼈다. 우드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교리와 성약 128:1 참조), 선생님을 초대했을 때 느꼈던 편안함(요한복음 14:26 참조), 초대하고 나서 느꼈던 기쁨(갈라디아서 5:22 참조)은 모두 영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가슴속이

뜨거워지기만을 구했다면, 성신이 내게 속삭였을 때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성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신의 소통 방식을 연구하면, 성신이 우리와 함께할 때, 또한 우리를 가르치거나 인도할 때 이를 인식하기 위해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작고 단순한 일들을 찾는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대부분의 계시가 세미하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엘마 이세의 이야기처럼 천사의 방문과 지진을 기다린다면, 그보다 더 빈번하게, 조용히 오는 성신의 속삭임을 놓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극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그보다 더 일반적으로 “작은 영적 속삭임[이] 조금씩”오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다.<sup>1</sup> 성신을 인식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작고 단순한 속삭임을 찾아야 한다.

**성신의 소통 방식을 연구한다**

가슴속에서 뜨거움을 느낀 적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성신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신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소통한다. 따라서

성신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가슴속에 뜨거움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성신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을 배우고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찾을 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성신이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래 목록은 성신의 소통 방식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96~97쪽을 공부하여 성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더 찾아본다.

“계시의 영이 작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생각과 느낌이 성신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1~2; 100:5~8 참조)<sup>2</sup> 성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선량함,

신앙, 온유의 느낌(갈라디아서 5:22~23 참조)

-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거나 강하게 밀려오는 생각(교리와 성약 128:1 참조)
- 선을 행하고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모사이야서 5:2 참조)
-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려 주는 느낌(교리와 성약 9:8 참조)
- 위안의 느낌(요한복음 14:26 참조)
- “내 영혼을 크게 하는 느낌”(엘마서 32:28)
- “이해력을 밝혀 주[는 생각]”(엘마서 32:28)
- 더 많은 진리에 대한 갈망(엘마서 32:28 참조)
- 어떤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거나 뭔가를 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느낌(니파이전서 7:15; 니파이후서 32:7 참조)



**가슴속에서 느끼는 뜨거움이란 무엇인가?**

“가슴이 뜨겁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연소로 인한 발화와 같은 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 저는 한 번도 가슴이 뜨겁다는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구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말은 위안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2쪽.



## 단지 내 생각일 뿐인지, 아니면 성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선을 행하고 선하게 되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Patterns of Light: Discerning Light”(동영상), LDS.org. 에서 비디오 전체를 시청한다.

### 이와 같은 생각과 느낌들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성신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느낌들은 다음과 같이 올 수 있다.

- “즉각적으로 강렬하게”
- “조용히, 점차로”
- “참으로 부드럽게 와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sup>3</sup>

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lds.org/go/revelationL6](https://lds.org/go/revelationL6)에서 동영상을 시청한다.

성신으로부터 어떤 생각과 느낌이 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한다.(요한복음 14:26 참조)
-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교리와 성약 45:57 참조)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파이후서 31:18 참조)
-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돕는다.(교리와 성약 84:85 참조)
- 영의 은사를 준다.(교리와 성약 46:11 참조)
- 죄 사함을 가져다준다.(니파이후서 31:17 참조)

### 선을 구한다

영을 인식하고자 할 때 그 느낌에 의도되어 있는 결과를 생각해 본다. 그 생각이나 느낌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는가? 모로나이서 7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어떻게 영의 속삭임을 인식합니까? 저는 정말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선을 행하고, 일어서고, 당당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너그럽고, 친절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약 어둡고 불길하며 추하거나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대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sup>4</sup>

자신이 영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와 같은 생각이나 느낌이 선을 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인지



**왜 성신을 인식하기가 어려운가?**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여 그 신성한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 없이 단지 구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약해지고 그분들께 의존하기만 할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7쪽.

자문해 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선택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구한다**

여러분이 합당한데도 여전히 성신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면, 행동을 취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택의지를 축복해 주셨다. 때로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 없이 행동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하여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딛도록 요청하실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적인 지식을 찾기 위한 탐구 과정 어딘가에 ..... 신앙의 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빛의

가장자리를 지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한두 발자국 앞까지만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sup>5</sup>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충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빛나가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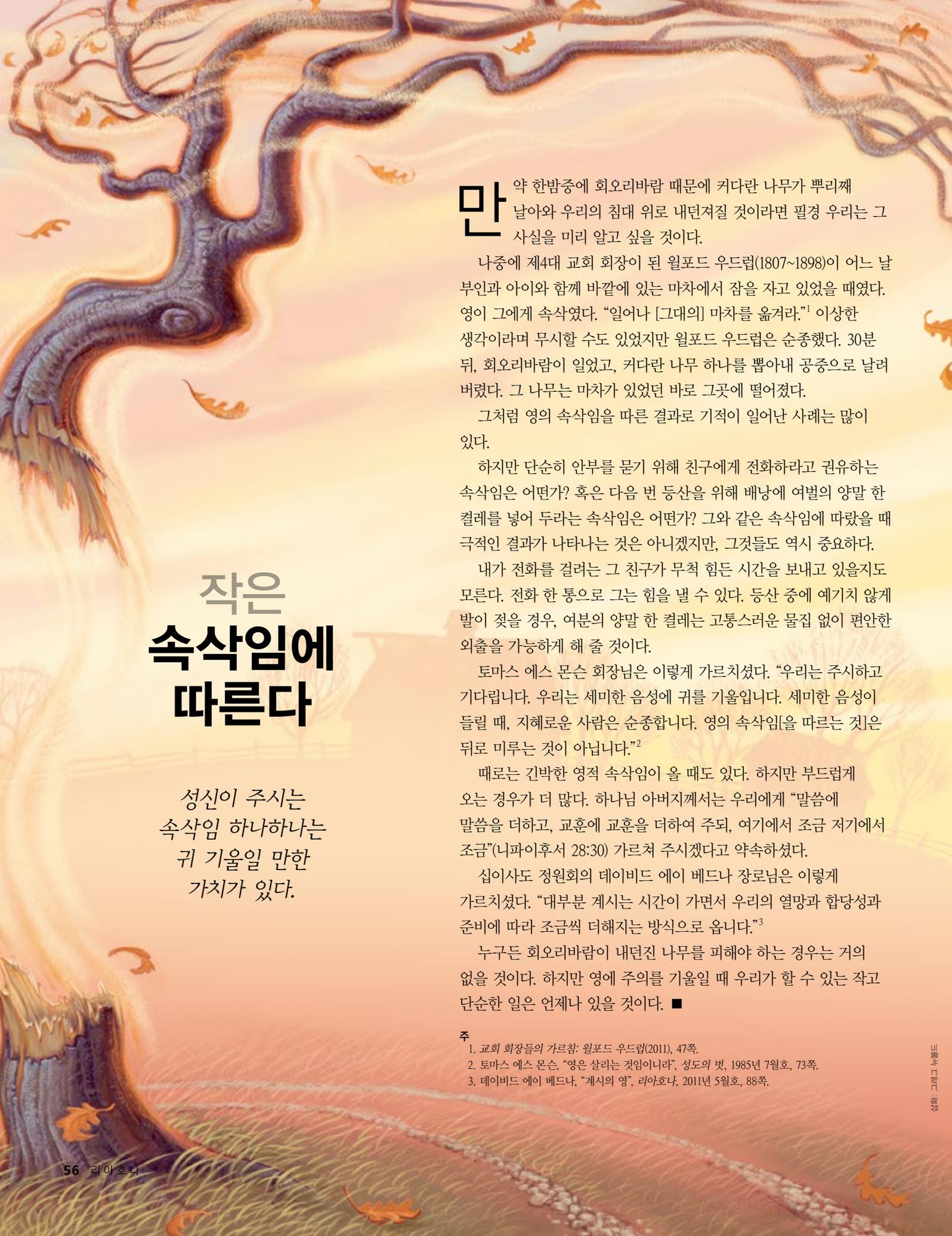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8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87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90쪽.
4.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260-61.
5.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18쪽.

**영의 느낌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는 성령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주님의 등불”, *성도의 벗*, 1988년 12월호, 34쪽) 영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설명이 조금씩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신의 소통 방식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설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성신을 느끼는 방법에 관한 사람들의 설명을 [lds.org/go/powerL6](http://lds.org/go/powerL6)에서 시청한다.



**만** 약 한밤중에 회오리바람 때문에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날아와 우리의 침대 위로 내던져질 것이라면 필경 우리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싶을 것이다.

나중에 제4대 교회 회장이 된 윌포드 우드럽(1807~1898)이 어느 날 부인과 아이와 함께 바깥에 있는 마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다. 영이 그에게 속삭였다. “일어나 [그대의] 마차를 옮겨라.”<sup>1</sup> 이상한 생각이라며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윌포드 우드럽은 순종했다. 30분 뒤, 회오리바람이 일었고, 커다란 나무 하나를 뽑아내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 그 나무는 마차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 떨어졌다.

그처럼 영의 속삭임을 따른 결과로 기적이 일어난 사례는 많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하라고 권유하는 속삭임은 어떤가? 혹은 다음 번 등산을 위해 배낭에 여벌의 양말 한 켤레를 넣어 두라는 속삭임은 어떤가? 그와 같은 속삭임에 따랐을 때 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들도 역시 중요하다.

내가 전화를 걸려는 그 친구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화 한 통으로 그는 힘을 낼 수 있다. 등산 중에 예기치 않게 발이 젖을 경우, 여분의 양말 한 켤레는 고통스러운 물집 없이 편안한 외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는 주시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합니다.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sup>2</sup>

때로는 긴박한 영적 속삭임이 올 때도 있다. 하지만 부드럽게 오는 경우가 더 많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니파이후서 28:30)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대부분 계시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열망과 합당성과 준비에 따라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옵니다.”<sup>3</sup>

누구든 회오리바람이 내던진 나무를 피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일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

## 작은 속삭임에 따른다

성신이 주시는  
속삭임 하나하나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11), 47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73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8쪽.

# 동생을 위한 축복

제시 존스

**나**는 불운한 시기에 신권의 힘과 축복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몇 해 전, 당시 열네 살이던 동생이 모터사이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 아버지는 전화로 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계시다고 알려주셨다. 병원으로 달려갈 때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곳에 도착하니 삼촌이 계셨다. 삼촌은 사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씀해 주셨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동생이 있는 병실 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섰다. 한 걸음 내디디며 두 눈을 감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가 느꼈던 메스꺼움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온 평화와 위로의 느낌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 느낌을 알았다. 바로, 영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삼촌과 함께 동생에게 신권 축복을 주고 계셨다. 아버지는 아들의 다리가 나아서 다시 제 기능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축복하셨다.

축복을 한 뒤에 모두들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아서 미래의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으려면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동생 병실 밖의 복도에 모였을 때 부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기 시작하셨다. 부모님은 멕시코를 떠나 동생을 미국에 있는 의사에게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수술할지를 상의하셨다. 동생을 위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동생이 이미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동생은 신권을 지닌 두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동생은 이제 괜찮을 것이다.

부모님은 멕시코에 남아 수술을 받기로 하셨다. 의사들은 나사 열 개를 사용하여 동생 다리 속에 판 하나를 박아 넣었다. 다친 곳은 잘 아물어 몇 달 뒤 동생은 축구 팀에 가입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축복이 실현된 것이다.

나는 신권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라는 것을 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얼마나 위대한가! ■

글쓴이는 멕시코 치와와에 살고 있다.



“신권이 부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참되고 의로운 방식으로 인도할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의로운 힘과 영향력의 필수적인 근원인 이 권세는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와 원리”,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7쪽.



## “성찬식 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지만(모사이야서 18:9 참조) 때로는 앞다투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려는 세상의 여러 영향력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산만함에서 벗어나 생각의 초점을 구주께 맞출 수 있습니다.

성찬식 동안 우리는 이 의식의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몸과 피의 상징을 취하며 그분의 무한한 속죄 희생을 숙고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다시금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성찬식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 대화 말씀이나 경전 구절을 공부하면 구주의 희생과 제자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상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찬 찬송과 축복 중에 그 가사와 기도문에 집중하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합니다.

성찬식 동안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제가 일상에서 시도하고 있는 변화들을 돌이켜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나면, 제 자신이 침례 때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속죄에 대해 생각하세요

저는 성찬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생각합니다.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넬피 비, 20세, 콩고공화국 브래저빌

###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저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구주께서 겪으신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이 제게 주신

여러 축복,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성찬을 취할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앤디 비, 13세, 미국 유타

### 성찬 찬송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세요



성찬 찬송은 우리가 성찬식에서 생각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성찬 찬송가인 “겸손하게

기도하오니”(찬송가, 113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와 우리 위하여 피 흘리사 죽으신 주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성스러운 의식 동안 성찬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커지고 평안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스틴 비, 15세, 캐나다 앨버타

### 기억하고 인식하십시오

성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회개한 죄로부터 씻겨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 동안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제가 한 일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어떻게 속죄를 선포하여 그것들을 극복할지를 고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찬은 영적으로 강화하고 고양해 주는 경험이 됩니다.

에버게일 피, 14세, 미국 애리조나

**축복에 감사하세요**



성찬식 동안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해야 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렌 에스, 16세, 브라질 파라이라바

**생각을 집중하세요**



저는 조그만 카드 한 장을 경전 갈피에 끼워 두고 매주 일요일 성찬식 때 꺼냅니다. 그것은 모사이아서 18장이 나오는

서표인데, 엘마가 침례 성약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카드에는 “속죄에 감사하라”와 같은 간단한 글들이 적혀 있어서 성찬의 목적과 거룩함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글들을 읽어 보면 성찬의 목적과 신성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리샤 엠, 19세, 미국 텍사스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그리고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을 합당하게 취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이사도와 함께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셨을 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나스 에이, 18세, 멕시코 모렐로스

**성약을 생각하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성찬식 동안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조용히 있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신권 소유자가 된 저는 성찬이 의미 있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 의식 동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와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 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성찬을 취하면 어떻게 침례 성약을 실현하려는 신앙과 소망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레비 에프, 19세, 나이지리아 아비아



**세상 일을 잊음**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구주의 속죄 희생보다는 음악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 우리는 세상 일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그 의식의 깊음 영적 의미를 인식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찬을 별 생각 없이 취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톨 패리 장로,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1쪽.

**다음 질문**

**“제 친구는 나쁜 일을 딱 한 번만 해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도 그들 사이에 낄 수 있다는 이유로 말합니다.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4년 7월 15일까지 [liahona@lds.org](mailto: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 또는 우편(3쪽의 주소 참조)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십일조는 내적인 힘을 가져옵니다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일조를 정직하게 바치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따르겠다는 내적인 힘과 결의를 갖게 됩니다.”<sup>1</sup> 저는 어린 나이에 이 원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열네 살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는데, 시간당 2달러를 받고 건설 현장에서 잡일을 했습니다. 첫 주에 받은 급여는 총 80달러였습니다. 저는 당시로는 최신식이었던, 테이프 8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스테레오를 사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은 320달러짜리였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부모님께 4주 동안 일을 하면 그 스테레오를 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4주 이상

부모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스테레오를 사려면 4주 이상이 걸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네 수입에서 십

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쳐야 하거든. 또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도 10퍼센트 정도 되겠지. 그리고 너는 선지자들이 선교 사업을 포함해서 미래를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하라고 하신 권고에 순종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단다. 그러니 네가 번 돈의 30퍼센트를 선교사업을 위해 저금하면 좋겠구나.”

어린 마음에 저는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면 매주 모을 수 있는 돈은 겨우 40달러에 불과해, 갖고 싶은 스테레오를 사려면 최소한 두 달을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십일조를 내고 저축을 하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할까?



## 그분은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십일조를 바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십일조를 못 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따를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본이 되어”, 리아호나, 1997년 1월, 44쪽.

## 십일조를 먼저 내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써야 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십일조를 먼저 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앙이 더 커지고 이기심을 극복하며 영에 더욱 민감해질 것입니다.”<sup>2</sup>

저는 열네 살 때 평생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교 사업과 미래의 교육을 위해 저축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최신식 제품이 갖고 싶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 기능이 단순하고 훨씬 싼 제품을 사기로 했고, 그것은 제가 선교 사업을 떠날 때까지도 잘 작동했습니다.

**잘 지킨 약속**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배우자, 신앙이 더 강해졌고 주님의 다른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망도 더 강해졌습니다.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면, 주님께서 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지속적으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이사야 58:6~11 참조) 물론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저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모로나이서 10:4~5 참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다]”(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결의 법을 지키면, 성신이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되고 제가 장차 부끄러움

없이 그분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구주께서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십일조와 헌물을 바칠 때처럼 제 내적인 힘이 커진 또 다른 경우는 성전 성약을 통해서였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은 온전한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sup>3</sup>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성전 의식을 통해 우리가 지상 생활의 시련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극복하도록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교리와 성약 95:8)을 받을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비된 축복**

십일조와 헌물을 바침으로써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제 신앙이 자랐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신혼 시절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를 비롯해서 제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십일조의 법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인생에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자라날 것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모든 청소년과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평생 동안 정직한 십일조와 후한 헌금을 바칠 것을 권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의로운 열망을 성취하도록 축복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본이 되어”, 리아호나, 1997년 1월, 44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38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8쪽.

#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



복음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함뿐이었다.

## 더그 보이액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대학생이 되자 더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다른 여러 곳에서 “진리”를 찾겠다며 피상적이고 이기적인 탐구를 시작했다. 평안과 기쁨을 주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깊은 영적 어둠에 빠졌다. 다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지배하는 우울함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건성으로나마 교회 활동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의 없는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는 공허함을 잊기 위해 공부에 열중했다. 이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진정한 답을 주진 못했다.

이리저리 방황할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을 깨달은 후, 나는 학교를 잠시 쉬면서 여행을 하기로 했다.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리 오래 쓸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진지한 신앙을 좀 발휘해서 얼마 안 되는 예금에 대한 십일조를 내기로 했다. 쉽지는 않았다. 곧 먼 타향에서 파산을 맞을 게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계시기를 바랐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십일조 명세서를 적어서 감독님에게 보내고 물몬경을 챙겨서 떠났다. 그렇게 하고서 거의 곧바로 영의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의심과 슬픔이 이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놀라웠다. 아이다호에서 워싱턴디시까지, 교회 회원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과 의로운 열망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주변이 모두 내 집처럼 느껴졌다.

얼마 되지 않아, 여행을 마무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훨씬 더 멋진 여행을 위해서 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을 만났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곧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매년 십일조를 내거나 교회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나의 진정한 개종의 “시작”을 떠올린다. 그때 이후로 여러 일을 겪었지만, 나는 영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나의 미약한 신앙의 표시를 받아 주시고 사랑으로 팔을 뻗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계명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에 맞서 자신을 파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실 비 드밀, 미국 영화 감독 및 제작자,  
“Commencement Address(졸업식 연설)” [브리검  
영 대학교, 1957년 5월 31일], 5;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



# ..... 엄마를

## ..... 위한 축복 .....

수잔 배렛  
실화에 근거

“하나님 권능이 회복되었도다 그 신권  
회복되었다 하나님 권능이”(어린이  
찬송가, 60쪽)

**초** 등회 시간이 끝나자 열 살 난  
루벤은 선교사들을 찾았습니다.  
선교사들은 루벤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체스 장로님과  
로하스 장로님은 루벤과 형 디에고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고 침례와 확인을  
해 준 분들입니다. 루벤은 선교사들을  
가장 친한 친구들로 생각했습니다.

루벤은 닫힌 교실 문에 달린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뭘 하는 거지?  
선교사들은 와드의 한 형제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었는데, 루벤이 확인 받을  
때처럼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방에서 나오자 루벤은 “뭘  
하신 거예요?”하고 물었습니다.

산체스 장로님은 “멘도사  
형제님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기도 같은 거예요.  
위로하고, 문제를 풀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거나 아픈 데가 낫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다음 일요일, 루벤은 교회가 끝난 후  
다시 선교사들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엄마를 축복해 주실 수 있나요?”



루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모두들 서둘러 루벤의 집으로 갔습니다. 산체스 장로님과 로하스 장로님은 루벤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루벤의 엄마는 교회 회원이시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가르시아 자매님, 몸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로하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러 주 동안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가 보았지만 도움이 안 되더군요.”

그러자 산체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벤이 신권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릴까요?”

엄마는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손을 엄마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는 동안, 눈물이 엄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축복을 마치자 루벤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축복이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루벤이 말했습니다.

사흘 뒤, 선교사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 다시 방문했습니다. 루벤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을 보게 되어 정말 기뻐요. 두 분이 축복을 주시고 떠난 후에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완전히 없어졌어요!”

산체스 장로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시아 자매님을 낫게 하신 겁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신권 권능으로 자매님을 축복했던 거예요. 그분은 저희가 그분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일요일, 그리고 그 후로 매주 일요일에 엄마는 루벤과 디에고와 함께 교회에 가셨습니다. 엄마와 루벤은 신권 권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글쓰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상화: 시메니 블룸거



### 신권이란 무엇인가요?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위한 권세입니다.

교회의 소년들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합당하다면 아론 신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합당하다면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의 직분은 집사, 교사, 제사가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에는 장로, 대제사, 축복사, 칠십인, 사도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성찬 준비(교사와 제사), 축복(제사), 전달(모두)
-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함(교사와 제사)
- 침례를 줌(제사)
- 금식 헌금을 걷음(집사, 교사, 제사)
- 다른 사람을 아론 신권에 성임함(제사)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아론 신권 소유자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음.
- 침례 받은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확인
- 신권 축복
- 교회 모임을 감리하고 부름을 줌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 선교사처럼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나눌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누구를 초대할지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외투에 명찰을 단  
전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에 명찰을 단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범이  
되십시오.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7-80쪽에서 발췌함.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칠십인 정원회

# 경건의 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복음  
14:27)

**제**가 일곱 살 정도 되었을 때, 초등학교 회장님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더 경건하게 되도록 돕고 싶으셨습니다. 자매님은 양처럼 생긴 큰 게시판을 만드셨습니다. 어린이가 경건할 때마다 자매님은 그

게시판에 적힌 그 어린이의 이름 옆에 양 모양 스티커를 붙이셨습니다. 저는 그 양 스티커를 정말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초등학교에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앉아, 초등학교 회장님이 저의 경건한 모습을 보시도록 그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키가 큰 형이 제 앞에 앉자, 저는 자매님이 저를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 앉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건히 있는 동안 반주자가 아름답고 조용한 초등학교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고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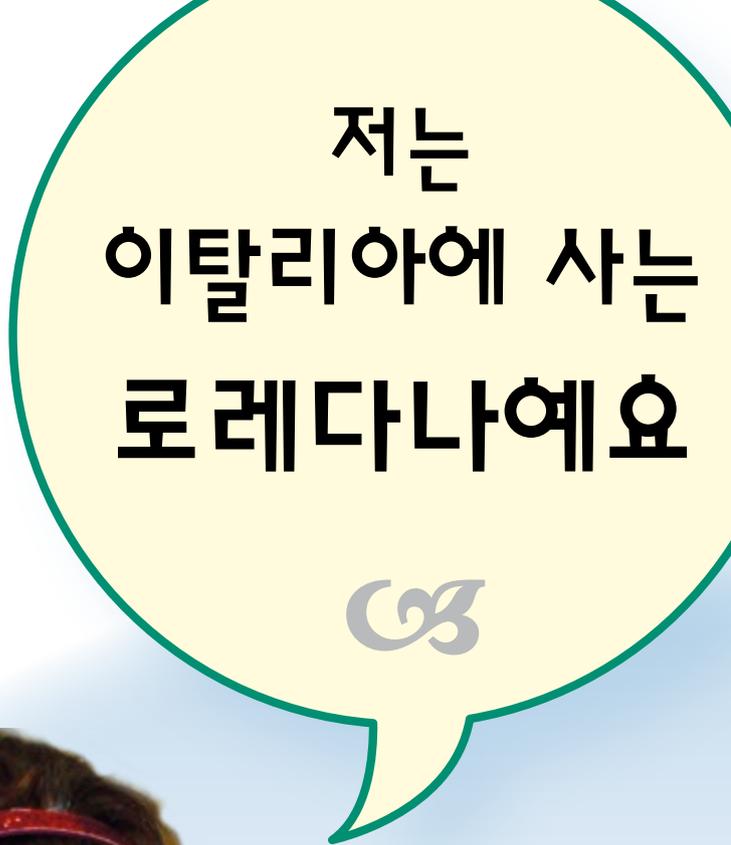
초등학교가 끝나고 어머니께 제가 느꼈던 것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것이 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영이 어떤 느낌인지 배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영의 인도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그날 받았던 느낌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영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



상화: 브래드 티어



전 세계 친구들



#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로레다나예요



## Ciao, amici!\*

애미 제인 레빗과의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도 별명이 있나요? 로레다나가 사는 도시는 때로 영원한 도시로도 불립니다. 로레다나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어요. 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는 콜로세움이나 트레비 분수처럼 가 볼 만한 흥미로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평일 아침마다 로레다나와 가족들은 함께 경전을 읽은 후 아침을 먹습니다(보통 시리얼과 우유를 먹지요). 그리고 로레다나는 학교에 갑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과 컴퓨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동생 프란체스코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이탈리아어로 "안녕, 친구들아!"라는 뜻.

엄마는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매일 밤 저에게 몰몬경을 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가 선교사들의 방문을 허락하신 뒤에 선교사들에게서 몰몬경 내용을 배웠을 때, 저에게 그것은 정말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로마 사진: 셰트게이 보리스토프/STOCKPHOTO/THINKSTOCK. 그 외 사진은 로레다나 가족이 제공함.

저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카드를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특별한 사진을 넣습니다.



엄마는 안젤리나 할머니를 돌보십니다. 때로 토요일에 저는 안젤리나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초등회 노래를 불러 드립니다. 안젤리나 할머니는 제 친구이고,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변이나 로마의 유적지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자주 새아빠가 저녁 식사로 아마트리치아나 파스타를 만드시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 나 성전 보고 싶어

엄마와 새아빠는 이태리 로마 성전이 헌납되면 그곳에서 인봉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저도 그날이 기대됩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 출발 준비!

로레다나의 가방에는 로레다나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건 중 어느 것을 여러분의 가방에 넣고 싶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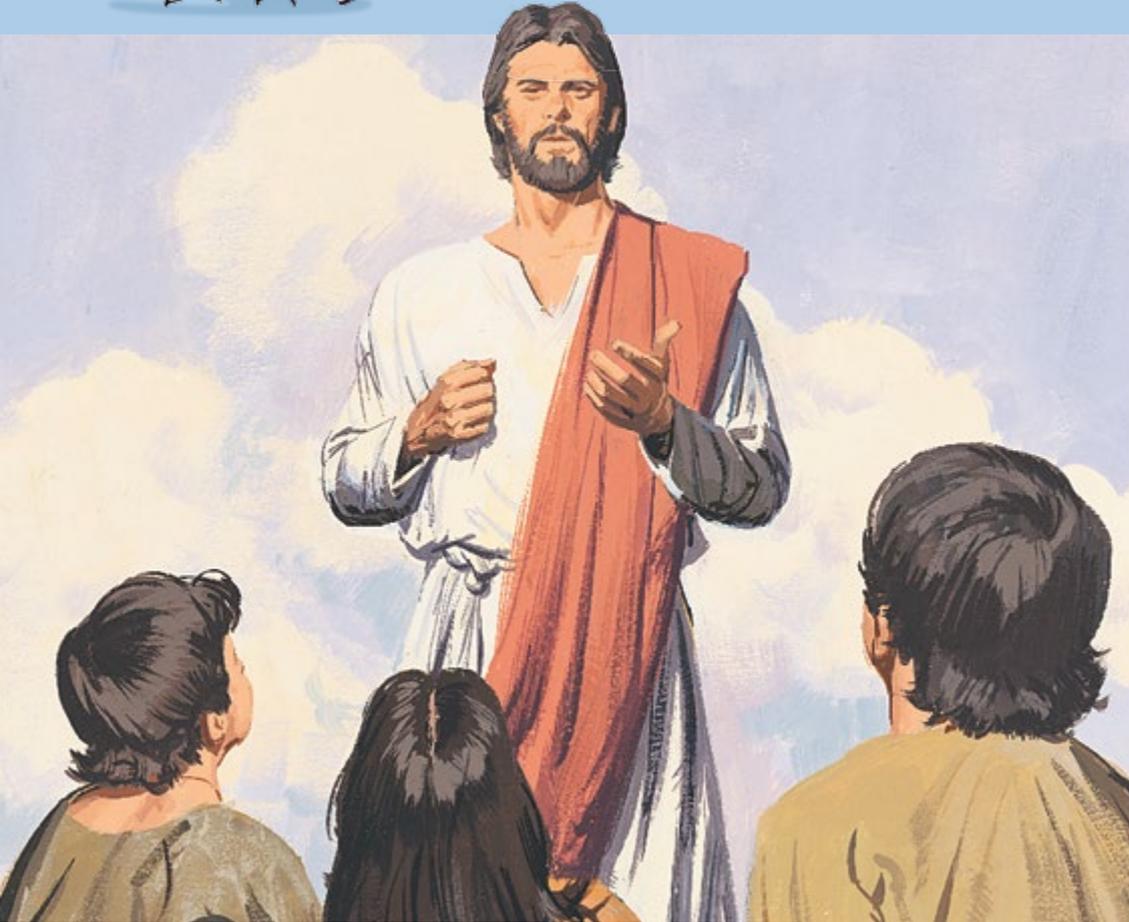
# 이탈리아의 마시모

마시모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교회 복장이나 이탈리아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힐 수 있습니다.  
각 그림을 색칠하고 오리기 전에 이 장을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이세요. ■





# 기꺼이 도와줍시다



## 예수님의 가르침

어느 날,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청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거나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서 왜 이러한 가르침을 “힘껏 도와주기(going the second mile)”라고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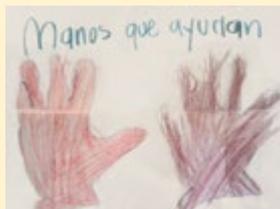


어느 날 밤, 저는 오빠랑 언니와 함께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빠가 들어오셔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께서 “집을 청소해 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시, 8세, 캐나다 앨버타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봉사 활동을 하실 때, 저도 함께 가서 도와드립니다.

루이스 앤, 6세, 멕시코 치와와



## 이달의 도전 과제

공과 시간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세요.

동생들의 숙제나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부모님께서 시키시기 전에 먼저 방을 청소해서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 주세요.

나의 도전 과제는 .....

\_\_\_\_\_

# 우간다의 소년 지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휘를 해야 한다면?  
조지는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딕슨  
교회 잡지

**초** 등회를 졸업하기 전에 교회 부름에서 봉사하는 어린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 사는 조지 엔은 겨우 다섯 살일 때 지부 음악 지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휘자란 성찬식 모임 시간 동안에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조지는 “예전에는 무척 떨렸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조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주 조금씩 실력이 좋아졌고 오래지 않아서 자신 있게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즐겁게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예배실 안에 영이 머무는 것 같아요.”

음악은 조지의 삶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지는 피아노와 기타도 연주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조지가 음악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조지를 포함한 여덟 남매는 함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로실라, 미리암, 낸시, 애슐리, 조지, 차옌, 오니다, 기드온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겨 부르는 노래는 “어린이의 기도”(어린이 노래책, 6쪽)입니다.

이제 열두 살이 된 조지는 성찬식에서 성찬 전달을 돕는 일로 분주합니다. 종종 다섯 살인 남동생 기드온이 음악을 지휘하여 도움을 줍니다. 조지는 기드온에게 지휘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휘할 때 두 형제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번집니다. 음악을 통해 모임에 영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 조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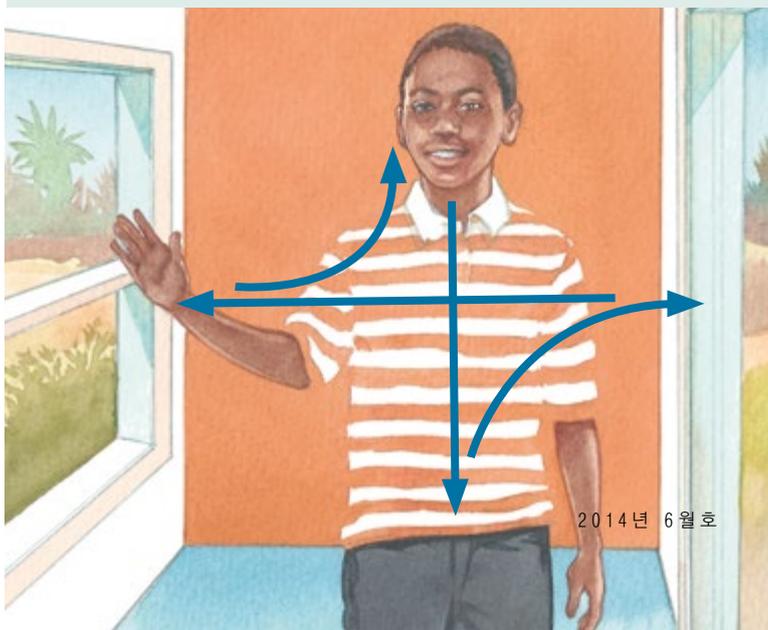
- 조지는 음악 외에도 취미로 축구를 합니다.
- 조지는 밥, 고구마, 콩, 땅콩을 즐겨 먹습니다.
-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와 수학입니다.
- 조지는 가족과 함께 보드게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보드 게임은 스캐테고리즈(Scattergories)입니다.



## 지휘법

여러분도 지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물몬경 이야기”(어린이 노래책, 62쪽) 지휘법

1. 노래 시작 부분에 있는 두 숫자를 보세요. 위의 숫자는 각 마디에 몇 박자가 들어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이 노래는 각 마디가 4박자로 이루어졌네요.
2. 손을 편안하게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모아요.  
손을 아래로 내려요.  
손을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런 다음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손을 위로 올려요.
3. 노래의 각 마디를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해요.
4.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여러분도 가정의 밤에서 노래를 지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신권 의식과 성전 사업은 우리 가족을 축복한다

제니퍼 메디

**칼**은 부두로 달려 내려가며  
아빠를 만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칼의 아빠는  
어부입니다. 칼은 종종 저녁 때 아빠를  
뵈러 배까지 뛰어갑니다.

“아빠, 어서 가요!” 칼이 외쳤습니다.  
“오늘 아빠를 위해 그린 그림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기대되는걸!”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배를 단단하게 묶어  
두어야겠구나.”

칼은 아빠가 두꺼운 밧줄로  
배를 부두에 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단단하게 묶어야 하는 거예요?” 커다란  
매듭을 잡아당기는 아빠께 칼이  
여쭙었습니다.

아빠는 바닷가에 있는 배 한 척을  
가리키셨는데, 그 배 바닥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 배는 잘 묶여 있지  
않았어. 그래서 지난 폭풍우 때 줄이  
헐거워져서 바위에 부딪혔지.”

칼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그분에게  
묶어 두시는지 아니?”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이요?” 칼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침례와 성찬 같은  
신권 의식도 주셨지. 엄마와 아빠가  
성전에서 결혼했으니깐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서로 묶이는 거야.”

칼은 아빠가 마지막으로 줄을 세계  
잡아당기실 때 함께 줄을 붙잡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매듭을 만들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경전과 노래

- 마태복음 18:18
-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가족과 함께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기다란 줄을 이용하여 차례로 줄에  
매듭을 만들고, 어떻게 신권 의식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었는지  
들려줍니다.





유아 축복



유아 축복



성전 결혼



침수로써의 침례



침수로써의 침례



성전 결혼



병자 축복



성찬



확인



병자 축복



성찬



확인

###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가까이 머물기

이 종이를 떼어 내어서 색상에 풀로 붙인다. 카드를 오려 내어, 탁자나 바닥에 뒤집어 놓는다. 차례로 두 장의 카드를 뒤집어 짝을 맞춘다. 같은 그림을 맞추면, 카드에 나온 의식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가까이 머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해 보게 한다.

# 우리들 이야기



메르아리 시, 11세, 엘살바도르



선교사들, 마리아 클라라 에이, 9세, 브라질

파울로와 카를로 디는 열 살이며, 필리핀에 살고 있고, 쌍둥이입니다. 이 두 형제는 신권을 받고 성찬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벌써부터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를로는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해 아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파울로는 물문경을 학교에 가져가서 반 친구들과 함께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두 형제는 매일 경전을 읽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카를로와 파울로는 타갈로그어와 일로카노어까지 두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도 배웁니다. 두 형제는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날, 텅 빈 교실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큰 소리로 나쁜 말을 한 번 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못한다고 하자 친구들은 저를 괴롭히며 마구 놀러 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겠다고 하고는 작은 소리로 재빨리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 행동을 아주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고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기 위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옳지 않은 일이라면, 친구들이 저에게 시키더라도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파올라 엘, 10세, 멕시코

## 예수님처럼 되어 보세요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학교에서 우리는 페스티단자(Festidanza)라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어느 한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임자가 행사를 일요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엄마께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사야 알, 6세, 페루



저는 리아호나 어린이난을 좋아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저는 항상 엄마께 그 이야기들을 읽어 달라고 졸라요. 저는 퍼즐이랑 미로 찾기, 색칠하기,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조셀린 시, 4세, 니카라과

태어나서 지금까지, 침례 받았던 날처럼 좋았던 일은 없습니다. 엄마는 제가 침례를 받으면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례 받던 날, 아빠와 저는 둘 다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떨리기는 했지만 아빠 손을 잡고 침례탕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침례 기도를 마치신 후 제가 물 속에 잠겼을 때,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확인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침례를 받아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모범이 되신 것처럼, 저도 제 동생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리차드 에이치, 8세, 과테말라



산티아고와 남동생 자이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아론 신권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신권이 있으면 성찬도 전달할 수 있고, 성전에도 갈 수 있습니다. 회복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훌륭한 특권입니다.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곧 초등학교를 떠나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청년 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산티아고 피, 11세, 에콰도르



아구스티나 비, 10세, 아르헨티나

“누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가 입은 옷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흰색이었다. 그의 이름은 모로나이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30~33 참조)  
에릭 에이치, 9세, 멕시코



**리아호나에 원고 보내기**

여러분의 그림, 사진 또는 경험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거나, “Our Page”라는 제목으로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아니면 3쪽에 나와 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각 제출물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성명, 성별, 나이(만 3세에서 11세), 부모님의 성명, 워드 또는 지부,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어린이의 원고와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구주의 그림은 그리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원고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벨라 비, 7세, 아르헨티나

# 월의 멋진 생각

린 그린웨이  
실화에 근거

**월**은 성전 사진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방에 걸어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월은 모든 사람이 성전 사진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을 거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마, 성전 사진 사 오셨어요?” 월이 여쭙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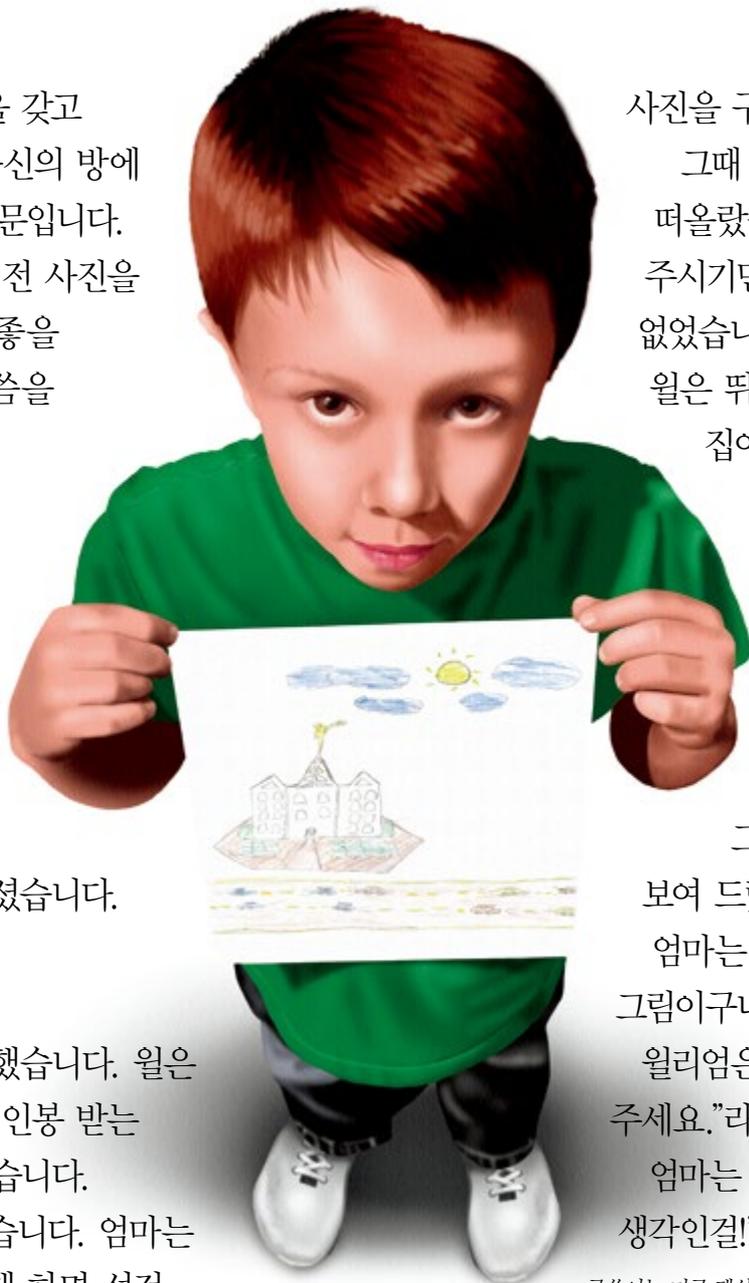
엄마는 “아직 못 샀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엄마는 갓난 아기를 돌보느라 무척 바쁘셨습니다.

“괜찮아요.” 월이 대답했습니다.

월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월은 성전이 가족이 함께 인봉 받는 특별한 곳임을 알았습니다.

월은 조금 슬퍼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바쁘신데 어떻게 하면 성전



사진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월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께서 사다 주시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은 뛰어가서 크레용과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월이 크레용을 내려 놓았습니다. 월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그림을 들어 올려 엄마께 보여 드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진 성전 그림이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월리엄은 “제 침실에 걸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인걸!”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산다.



#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켈리 루이스 우라리

**남**편의 병은 갑자기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잔디를 깎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게 되었다.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옮겨 가는 동안, 한 의사는 남편을 '만일(if) 살릴 수 있다면'이란 표현을 썼다.

남편의 병은 희귀병이라서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나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

감사하게도, 남편 피에르가 받은 첫 번째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남편은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은 멀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생존가능성이 높아져 갔다. 첫 수술을 한 다음 날 아침, 많은 간호사 중 첫 번째 간호사는 피에르가 받을 다음 단계의 치료를 진행할 '때(when)'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단어의 위력에 잠시 멈칫했다. 만일(if)보다는 ~할 때(when)라는 표현에는 훨씬 더 큰 희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내게 확신과 기대감을 주었다. 나는 그 간호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 고맙다고 했고, 그녀는 다 이해한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피에르는 신권 축복을 여러 번 받았으며, 그 덕에 큰 힘을 얻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님의 손길을 지켜보고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그분은 만일(if)의 문제뿐만 아니라 ~할 때(when)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셨다. 피에르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나는 남편에게 그가 받은 축복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 줄 필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님의 손길을  
지켜보고서  
알게 되었다.  
그분은 만일(if)의  
문제뿐만 아니라  
~할 때(when)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셨다.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정말 성스러운 여정이었으며, 하루하루가 선물과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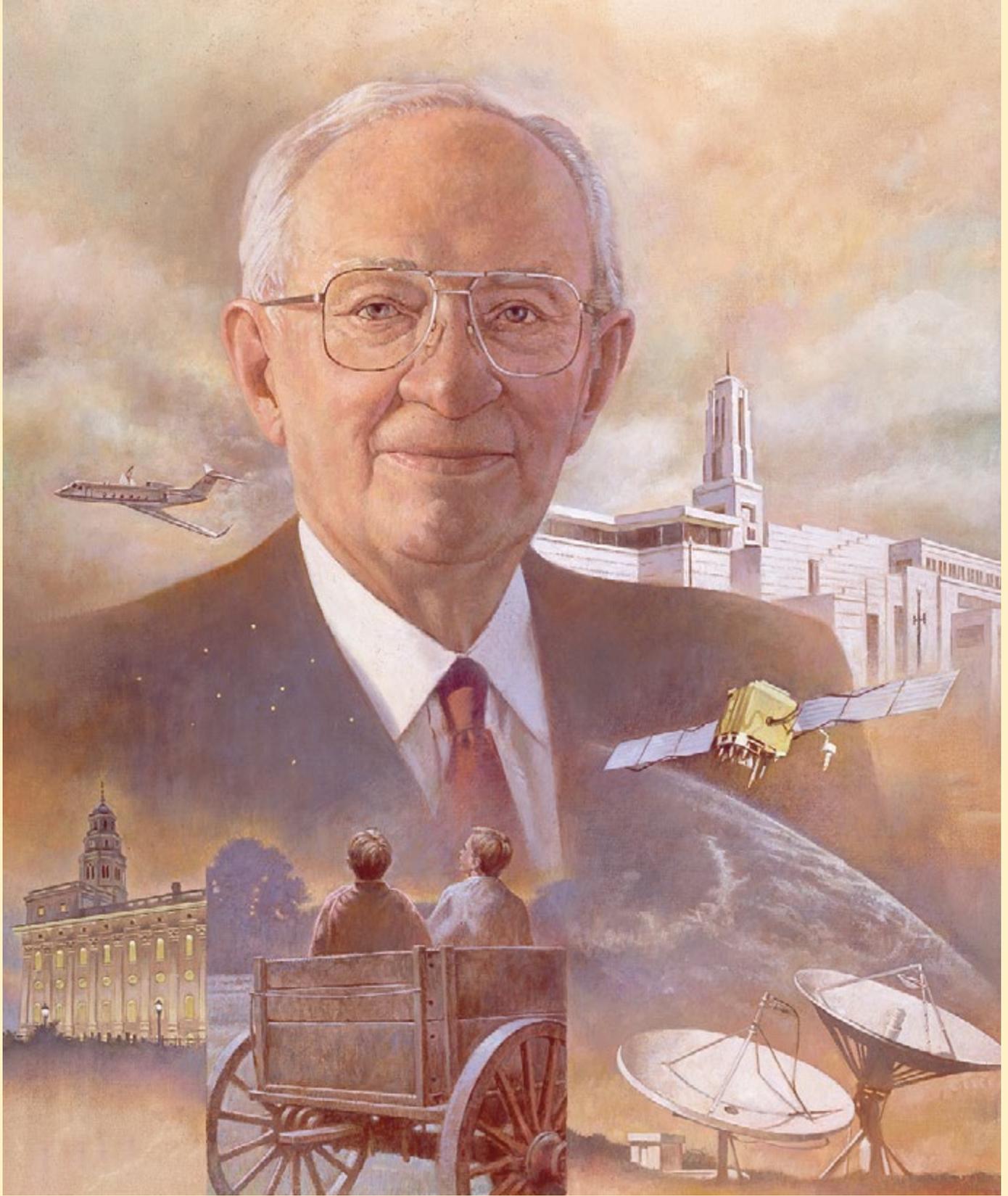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when)에 대한 희망으로 계속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병상 생활 18일째 되던 날,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 일곱 번째 수술을 하는 동안, 의사들은 병이 너무 퍼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진은 남편이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눈물지었다.

남편이 회장 저편으로 갈 때, 나는 영원한 동반자의 곁을 지킬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남편이 먼젓번 결혼에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을 전했다. 남편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몇 주 후에, 남편의 묘지에서 모사이아서 2장 41절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았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 만일(if)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강조 추가)

남편과 나는 항상 그 성구에 나오는 만일(if)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그 때(when)를 의미할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충실히 지키므로써 재회하게 된다는 것을 알며, 그것은 오직 그렇게 될 때(when)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가족과 영원한 삶에 대한 계획을 신뢰한다. 그렇게 될 때(when)에서 힘을 얻어,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글쓴이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산다.



삽화: 로버트 티 버렛

## 고든 비 힝클리

고든 비 힝클리는 자연을 사랑하며 성장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분이 심은 호두나무 한 그루는 컨퍼런스 센터 연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든은 종종 구주의 사랑을 북극성에 비유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분은 그 별자리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320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위성 중계 방송을 통해 그분의 간증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가 교회 회장직에 있는 동안, 재건축된 일리노이 나무 성전을 포함하여 70여 개 이상의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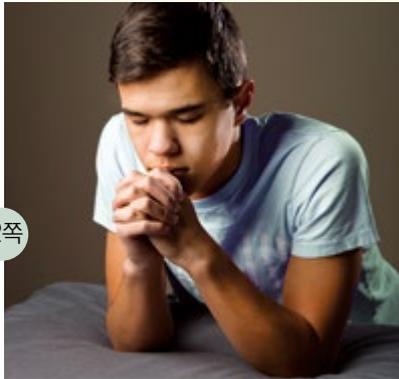


## 행복의 길을 따라

제럴드 코세 감독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원리를 가르친다.

42쪽

청소년



52쪽

만약

## 가슴속에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신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린이

## 월이 떠올린 멋진 생각

집에 걸어 둘 성전 사진이 필요하세요?

78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